



眞理 正義
自我 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高有峰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金性範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064) 55-6156 (교내) 55-6141
인쇄: 한라일보사

제408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 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 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월 5일 토요일

1

대학운영에 시대정신 최대한 반영 「대학발전기금조성추진위」도 구성할터

新年辭



總長 金澤玉

199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우리대학교의 모든 분들이 다함께 축복받는 영광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감회는 벅찬 기쁨 보다는 다가올 새해의 산적한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대학 본연의 역할을 보다 성취있게 교내·외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에 대한 설렘일 것입니다.

기회 역사적 지각변동이라고 부를만한 놀라운 변화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국제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변천되고 있으며, 첨단과학을 비롯한 학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현실은 제각기 생존을 위하여 경쟁하는 냉엄한 상황이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 대학의 기능과 대학인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할 때 그 책무의 막중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대학교가 사회로부터의 각별한 기대에 부응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지닌바 학술적 소임을 다하는 한편 한국 대학사회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작년까지의 우리들 냉철하게 되돌아 보고,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분석 검토하며, 올해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창의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대학발전의 지표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기도한 「대학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를 서두름 뿐 아니라 현재로서도 열악한 연구·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대학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키 위하여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조성추진위원회」를 곧 구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학술연구자료의 확보와 새로운 실험실습 기자재의 도입 등으로 연구여건과 교육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한편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국제학술교류에도 지원될 것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대학기본시설과 지원시설들이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이 증축하게될 시설이 적절

하게 대학구내에 배치, 건설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물 건축을 관계당국과 절충하여 대학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시대상황 이기 또한 국제화추세에 맞추어서 외국어교육과 국제학술교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시공중인 외국어교육관의 조기완공과 시설확충도 절박한 바 있지만 외국어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전공과목과의 연계성 그리고 외국인 교수의 강의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교류를 제고하고 있는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보다 내실있게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 추세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전산시설을 확충하여 연구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종합대학교로 승격한 198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재검토하여, 그후 해마다 계속 새로이 제정되어온 규정들과 상호 모순상충되는 부분들을 재검토하여서 대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용어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정신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구성원들의 역할분담현상이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이 대학운영에 참여하는데 있어 자기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역할분담이 일어나고 있으니 권리주장에는 열성을 보이는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자기견해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물리적인 힘으로의 해결을 시도하여 서로 불신하고 지배하려는 여러형태의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 불신과 폭력의 악순환을 신뢰와 존경과 협조의 새풍토로 바꾸어서 역할분담을 역할분담으로 변형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여야 할 바와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 인식해야 하며, 참된과 사이비들, 선함과 위선을, 그리고 아름다움과 가식을 분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원 모두의 의지와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해결에 협력하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진실로 건전한 대학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공동체」는 교수·직원·학생들만이 이루어진다는 좁은 內包의 개념에서 벗어나 동문·학부모·특지가·정부당국까지도 포함시키는 넓은 外延의 개념으로서의 인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동문·학부모·특지가·정부당국의 협력과 지원없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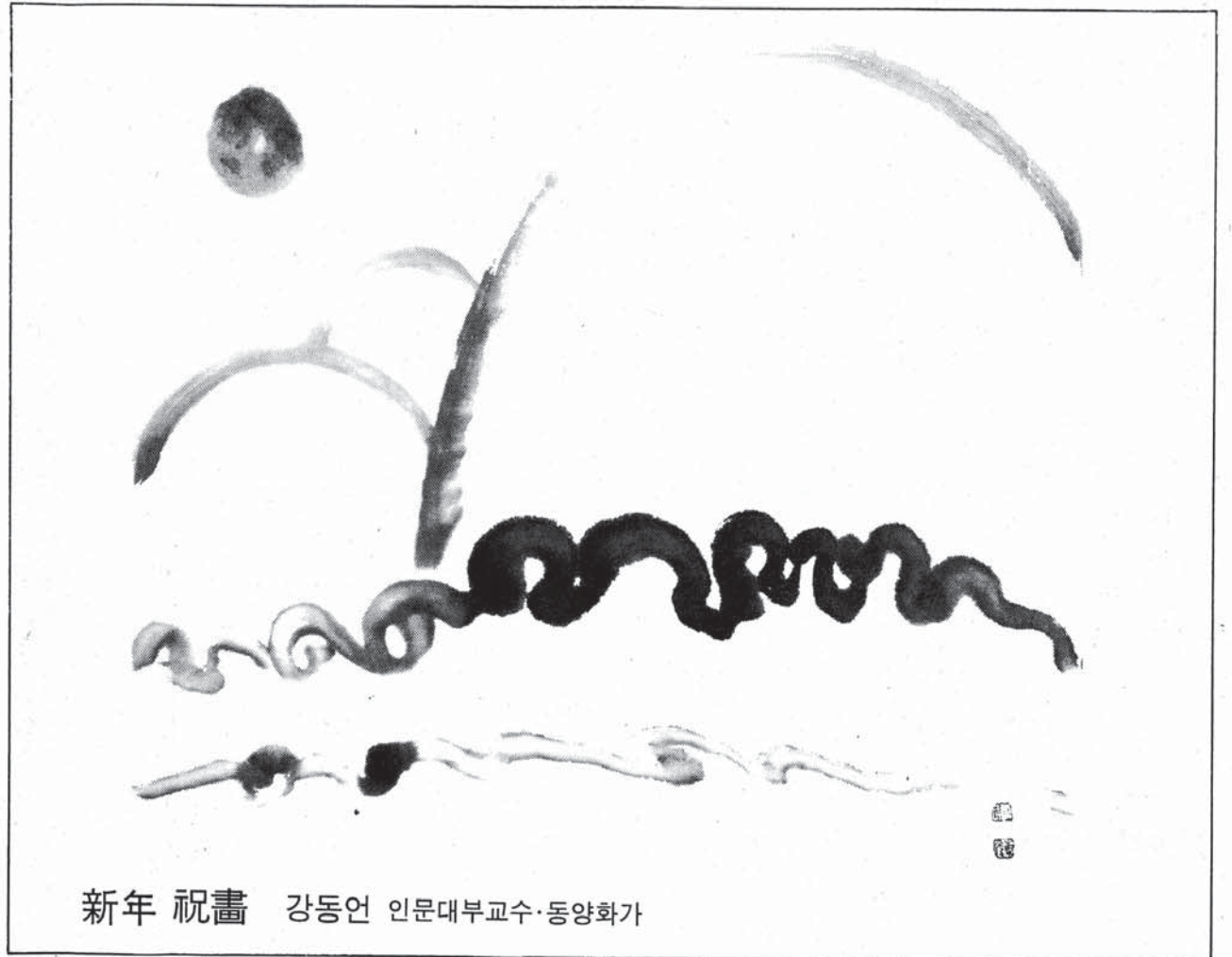
여러분! 우리대학의 운명은 그 구성원 모두의 운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각기 품고있는 대학에 거는

기대와 포부는 대학의 과제로 수렴되고 성취돼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기인 21세기에로 향해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교수가 전공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몰두함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겸허한 자세로 진실되고 성실하게 학술과 지성의 길을 정진하여야 하며, 大學管理運營의 重責을 맡고있는 분들도 職分마다 擔當한 職務의 본질과 업무분담의 범위와 한계를 인식하여 전문성을 더욱 재고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의 질을 가늠하는 학문적 탁월성 추구의 민주중토의 실현을 위해 모든 재대인들이 협력하여준데 감사로 드리며, 동문·학부모 그리고 직접 간접으로 대학발전을 지원하여 주신 국내외의 모든 인사들께 새해인사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재대인 여러분, 대학의 빛인 진리와 정의를 따라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민주실천의 투철한 신념으로 우리모두가 축복받는 영광된 1991년 새해를 펼쳐나갑시다.

1991년 1월 1일



新年 祝畫 강동언 인문대부교수·동양화가

新年詩

그날이 오면...

문무병 同門·詩人

명명 북을 울려라 곳을 하자
대명천지가 밝아 온다
어둠은 빛으로 밀어내고
겨울은 하북영산(漢擎山) 아라뱃 역새숲을 태워
얼어붙은 삶과 살, 피와 피 끓어오르게 하자.
그러나 어둠은 너무 깊었다
그러나 겨울은 너무 길다.
곳을 하자. 아라뱃 신장이 타며 두근거리는 북소리
하늘 삼천 천제석궁 곳을 열고, 신명으로 곳을 하자
죽임과 폭력으로 비린 세상, 어둠속에 부정의 금줄을 치고,
하루산 신령님 윈 손으로 하늘의 산수육을 잡고
오른손 대지의 맥을 짚어 천지가 감응하는날,
하루산 들오름남에 새 손이 들고, 이를 없는 남녀 화합하여
하늘에선 청이슬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 솟아나
감을 동방으로 대명천지가 밝아온다.
아라뱃에 핀 역새 단풍이나 햇불로 타오른다.

여기 하북영산 아라뱃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애기 무당들이
어둠을 밀어내며 아라뱃 역새꽃 만큼이나 타오르고 있다.
바람이 불면 뉘엿뉘엿 타오르다가
일락서산에 해가 지면 사라져버릴까
행여 슬픈 아기 장수들 새운 같은 날개를
누가 불인투로 지져버리지는 않을까
죽임과 폭력이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버리지는 않을까
곳을 하자, 아기 장수 신장을 들고 복을 치며
하루산 어느 굴렁에 쓰러져 잠든 출고 배고픈 뱃들을 살려내는
곳을 하자. 해방과 통일된 세상을 위한 곳을 하자
치사한 잡놈들, 거짓 위선자들, 알량한 기회주의자들
서천강 연못, 어둠으로 밀어내고
생명꽃, 환생꽃, 웃음꽃 아니 동백꽃 들고 곳을 하자
나비 나비 나 놀개 뜬 나비들 파르르 날고
이제는 더 슬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저승 삼마로로
죽은 뱃들을 보내 드리고, 산 사람들은
그대 눈을 찾아서 내 가슴에 한 줄기로 흐르고
나의 눈물 뜨겁게 그대 몸을 감아 슬픔 활활 태워
하나가 되는 신명나는 곳을 하자
천지가 감응하여 하나가 되는 해방의 나눔곳을
한라산 꽃사슴과 백두의 호랑이가 만나는 통일의 맞이곳을
너무 젖어 뜨거운지 모르는 그런 진한 참사랑으로
곳을 하자. 대명천지가 밝아 온다.
하늘에서는 청이슬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음양 합수하여
하늘과 땅이 같이 갈리고.....
감을 동방으로 신미년 새해가 밝아 온다.

'91학년도 본교 각 대학원생 모집요강

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약간명
 - 석사과정: 국어국문, 경영, 경제,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물리, 식품공, 기관공, 통신공학
 - 박사과정: 국어국문, 경영, 농, 원예, 축산, 농화, 어업, 수산생물, 해양, 생물, 식품공
- 시험과목
 - 석사과정: 영어, 전공, 구술시험
 - 박사과정: 영어, 제2외국어, 전공, 구술시험
(제2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중 택1)
*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자에 한하여 한문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야간)

- 모집과정: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약간명
-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국민윤리교육, 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생물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전공
- 전형방법: ①필답시험(영어, 전공과목) ②면접시험
- 특별전형: 각 전공 약간명
- 교직경력특혜: 교직경력 5년 이상인 현직교원은 전형시 특별 고려함.

경영대학원(야간)

- 모집과정: 석사과정 약간명
- 모집학과: 경영학과
- 전형방법: 영어, 경영학, 면접

최고경영자과정(야간)

- 모집인원: 〇〇명
- 지원자격: ①공·사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②고급공무원 및 각군의 고급장교 ③각종 사회단체의 간부 ④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행정대학원(야간)

- 모집과정: 석사과정 〇〇명
- 모집학과: 행정학과(일반행정, 지방자치, 사법행정전공)
- 전형방법
 - 일반전형: 필답시험(영어·행정학), 면접
 - 특별전형: 필답시험(행정학), 면접
- 특별전형대상자: ①5급이상 공무원 ②영관급, 정감급이상 군·경찰공무원 ③국·공영, 사기업체간부 ④기타 이에 준하는 자

고급관리자과정(야간)

- 모집인원: 〇〇명
- 지원자격: ①국가·지방공무원 ②공·사기업체의 임직원 ③군 및 경찰간부 ④기타 수감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각 대학원 입학 전형일정 ◎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년 1월 4일 ~ 1월 11일
(각 대학원 교무과)
 - 전형일시 및 장소: 1991년 1월 18일 오전 10시
각 대학원
 - 합격자 발표: 1991년 1월 25일 오전 11시
각 대학원 게시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무과로 문의 바람.
주소: (690-756) 제주시 아라동 1번지
전화: (064) 55-6141~76(구내대학원 2052, 교육대학원 2061, 경영대학원 2071, 행정대학원 356)

濟州大學校

社説

자기변신의 해로 삼자

새해는 辛未年 임의 해다. 양은 12지의 여덟번째 동물로서, 부드러운 힘으로 사악한 힘을 끝내 이기는 만물의 본질을 비유적으로 상징한다. 너무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남의 부정을 용납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양의 정직하고 온순한 성품은 새해 우리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시사적이다. 그 시사의 핵심은 의로운 사람이 질서는 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고, 인간다운 삶이 충만하기를 빌어보는데 1991년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2000년대를 준비해야 하는 90년대의 첫해를 혼돈과 좌절 속에 보냈기 때문에 새해에 거는 기대는 어느 해보다 클 수밖에 없다. 정치의 본령을 되찾는 일이라든가, 地自製 등을 통해 국민의 민주주의의식이 고양되는 일 하며, 경제정의의 수립을 통해 일타니고 활력 넘치는 경제를 이룩하는 일 등은 올해의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범죄의 부패,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극대화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질감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한 양측의 통일을 위한 가시적 노력 역시 올해의 당면하고도 미망한 과제에 분명하다. 그리고 보면 어느 한 수완 일이었다. 문자 그대로 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조화로운 문제를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화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노력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대학수업에 더욱 요망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변신을 거부할 때 그 사고는 미망화될 것이며 그 사회는 사마니즘화되기 마련으로 그러한 미망과 사마니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아말로 대학인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이다. 미망과 사마니즘이 완강한 당위성의 고집을 생명으로 한다면 우리 대학수업의 자기변신의 노력은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고독한 작업이며 개성적인 작업이다. 그러한 고독과 개성이아말로 곧 대학인의 학문적 기본 자세임은 물론이다.

양은 때로 그 온순한 성품과 외모 때문에 羶羊이라는 말에서 보듯 희생물의 상징으로 여겨져오기도 하나, 아름다움을 가르는 미자나 의로움의 義, 그리고 착함의 善 이복에 상서로움을 가르는 祥자 등이 모두 부자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올해 辛未年의 그 기쁜 의미를 되새겨 볼만하다. 정말이지 진정한 화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자기변신이 없이는 아름다움도, 의로움도, 착함도 못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서로운 일도 맞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행이 자초해서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을 지향하는 자기변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복 많이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자기변신, 말은 쉬우나 참으로 변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러 일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격려가 요구되며 새해 元旦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격려의 의미로 서로 福을, 그리고 德을 듬뿍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 대학수업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충심으로 빌어본다.

현장에서 등록금 인상기준

「인상률까지 쫓아갈 수 없었지요」

지난 27일 91학년도 등록금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경리과에서 취재하던중, 이미 신입생 등록금 내역은 결정된 상황이라 재학생 등록금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전국 국립대학 인상을 이하시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최하위수준은 결코 아니냐」라고 강조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본고가 비록 전국국립대학중에서 부족한 점이 다소 있긴 하지만, 자격지심도 자격지심 나름이지, 등록금 인상률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순위부터 따지려 드니, 어안이 벙벙

실사 등록금 인상률이 전국 국립대학중 최하위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최상위가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숫자를 좋아하는 현대인들. 모든 가치판단을 수로써 재려하는 모습들은 어느새 우리의 의식속에, 행동속에 배어 버렸다. 질적 측면보다는 수를 너무나 강조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甲】

無論有說

新年斷想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새해가 왔다. 마음이 시든 탓인지 새해를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꾸미고 싶지가 않다. 해가 갈수록 느낌과 생각들은 금방 퇴색해 버린다. 지금까지 얻은 지식들도 자꾸 초라하게만 느껴진다. 그렇게 해 보았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곧 고개를 내민다. 웬지모르게 날마다 삶은 사막과도 같고, 사람들은 사막 속의 모래알과도 같고, 사회는 끝없는 민중산처럼 여겨진다.

우리가 꿈없는 세기말에 살고 있어서 그런걸까? 푸른 색깔같은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할 새해의 벽두에 늘어놓는 나의 말들이 나의 개인의 생각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과 사회가 점점 획일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난해를 보내면서 또렷히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새해에 나는,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커다란 가치를 점점 잃어 버리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본다.

도명·가리가 쓴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밀렵꾼들이 아무도 모르게 죽어 간다. 나중에 밀렵꾼들을 살해하는 사람이 밝혀 지는데, 그는 그 전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강제수용소의 바라크건물 속의 좁은 복도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있

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넓은 평원을 유유히 걸어 다니는 코끼리 떼의 모습을 항상 머리 속에서 그려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코끼리들이 밀렵꾼들에 의해 죽어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느끼는 코끼리의 가치는, 밀렵꾼들이 생각하듯, 코끼리가 가진 상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코끼리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상아라는 효용적 가치가 아니라 코끼리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가치일 것이다. 이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직접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드러나지 않기에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물질적 가치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죽이는 일을 한다.

내 연구실은 창밖으로 한라산이 항상 바라다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라산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안다. 연두빛에서 짙은 초록이 되었다가 갈색으로 변하면 한해가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즈음의 한겨울이 되면 한라산은 희푸른 색깔을 띠는데, 가까이 있는 검은 초목빛 소나무 숲의 색과 아름다운 대비를 이룬다. 가까이 보이는 오름과



金鍾泰

언덕의 부드러운 선들과 한라산의 강한 선들이 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맑은 날 아침에 연구실 창문을 열면 은설에 빛나는 한라산의 푸른 자태와 맑은 산기운이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내가 단순하게 느끼는 한라산의 아름다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또다른 아름다움을 한라산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라산의 가치는 이러한 미적가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라산은 온갖 나무들과 수풀들을 기른다. 비가오면 이 나무들과 수풀은 물을 가두어 두고 정화해서 조금씩 해안으로 보낸다. 해안에서는 맑은 물들이 솟아 나서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제주가 제주의 땅과 사람이라면, 이 제주의 땅과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 한

라산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저 아프리카의 밀렵꾼들이 하듯이,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한라산 훼손의 광경을 볼 때,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라산의 자생 나무를 모조리 캐다가 상품화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구멍을 뚫고 지하수를 퍼올리는 사람들, 도로를 내기 위해 산을 마구 파헤치는 사람들, 먼저 경작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대지로 만들기 위해 수십년 자란 아홉드레 소나무들을 아낌없이 무참히 베어 내는 사람들, 무슨 개발을 한다고 산을 깎아내고 매꾸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라산의 적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오직 물질적 효용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회전체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물질적 효용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가치일 뿐이지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이라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그 가치만 실현되지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 같은 것일 게다. 물질적 가치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절대화시킨다면, 모든 다른 가치에 앞서 그것만을 추구할 때, 가치들의 조화와 상호보완성은 깨어진다. 산이 숲을 만들고 숲은 맑은 물과 공

기를 만들고, 또 경작지를 있게하고 보호하고 경작지는 다시 식량을 만들어 내듯이, 큰 가치는 그보다 작은 가치들을 만들어 내고 보호한다. 물질적 효용가치는 제일 마지막에 얻어야 하는 소모성 가치이다. 어느 가치든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가치들과 고리를 이루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가치만을 떼어 내어 절대화시킬 때, 가치질서와 가치체계는 마비되고 불구가 된다.

그럼 때 우리의 사회와 삶도 병들고 불구가 된다. 가치의 확인하는 모든 다른 가치들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오직 하나의 가치만이 절대화 될 때, 우리의 사회와 삶은 그 가치만을 얻기 위한 치열하고 우둔한 경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가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에 젖게 될 것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물들도 많은 가치영역과 우리의 의식만큼이나 넓은 가치의 지평을 가지고 있기에 눈앞에 드러나는 물질적 효용가치에만 눈멀어 다른 큰 가치를 망각하거나 희생시키는 우둔함을 버려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물질가치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 사막과 민중산같은 삶이 푸른 숲이 싱싱하게 자라는 푸른 현실로 변하는 것을 머리속에 그려 보면서, 우물과 체면의 새해의 상념들을 새로운 꿈으로 바꾸어 본다.

인문대 부교수

특자의소리

濟大新報는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두고, 바람니다.

껍데기를 벗어 던지자

— 辛未年을 맞으며

지금쯤은 91학년 후배를 받아들이는 선배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대학에 발을 내디딜 때와 비교해 별로 변한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도 어디든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늘 변하고 있으며 내 나이에 어는 새 스물하루로 치닫고 있다.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 이러한 일을 하겠노라고 설계를 해보는데 다가오는 해에도 예외없이 그런시간을 갖게된다. 지난해 어떤 때까지만 일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이러한게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도 해 본다. 이런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런지 모르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기마나나 발전의 계기를 갖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뜻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것처럼 말이다.

대학고 2학년이라는 위치는 1

학년때처럼 그럴적려 어울리면서 살아갈수만은 없는 시기이다. 이제부터라도 껍데기를 벗고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키워야 하겠다. 이번 방학을 계기로 좀 더 내적으로 성숙된 내가 되어 단지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아니라 보다 폭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영희 국문학과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한해를 알차게 보내자

벌써 한 해가 소리없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 辛未年을 맞게된다. 그리고 보면 시간이란 정말 말 그대로 「손살」같은 걸 실감할 수가 있다.

1학년 때는 풀이하는 새장의 새처럼 자유를 누리기는 했지만 이제 새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날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유를 무턱대고 「노는 것」으로 오인하기까지 했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면서는 철이 들어서인지, 들어가는 건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으며 그에 관한 계획들을 천천히 짚어 짚어 앞에까지 붙여 놓기도 했었다.

거짓된 삶에서 탈피하자

더이상 현실모순 묵인 말아야

대학생활 1년을 보내면서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은 자신이 옳지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거부하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최대목적이 학문탐구라는 말만을 따라 대학 4년동안 취직을 위한 전공공부에만 전념하거나 Vocabulary(일명, 바퀴벌레)에만 연연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주성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광복이후 자본주의하 46년동안 일제 모르게 지배체제에 대해 순응하는 생활을 강요받아왔다. 또한 적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알아서 서로를 짓밟고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부득부득 애를 쓴다. 그러

한해가 가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계획했던것 중 과연 몇개나 실천되었는가?」하는 아쉬움으로 자리잡으며 나를 후회와 실망으로 인도해 갈을 느낄 수 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3학년이 된다. 올해의 모든 아쉬움들을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결과라 여기며 보다 실천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 후회없는 한해를 보내고 싶다.

김정인 회계학과

심판 교수공채에 대한 기대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교수들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교수확보율을 보면 법정정원은 527명인데 비해 현재 전임 교수는 294명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계로 우리 학우들은 받고 싶은 수강과목이 있어도 담당교수가 없는 실정으로 인해 한정된 범위내에서 강의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교수 또한 주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감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생이나 교수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시간강사를 적절하게 채용해 강의의 활성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학기 재정압박을 주요인으로 시간강사 채용을 대폭 억제하고 대신에 전임교수 공채안을 내놓아 올 학기초에는 30여명의 신입교수가 공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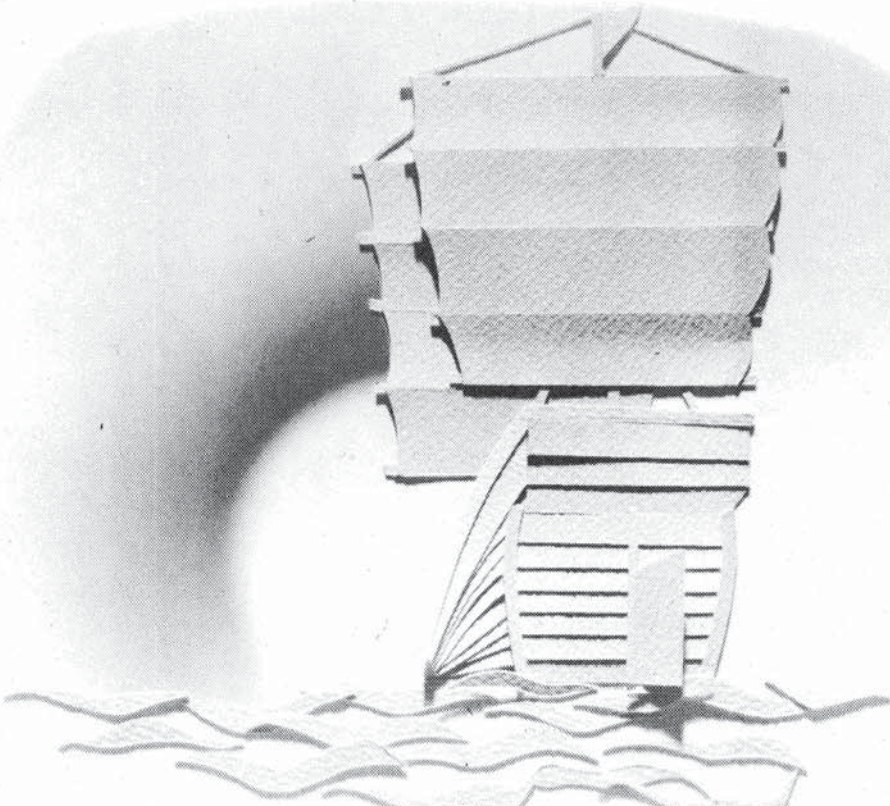
작년을 비롯, 지금껏 우리는 파행적인 교수공채로 인한 교수 퇴진운동을 많이 보아왔다.

전공상치 및 무성의한 교육방식에 따른 수업부실과 학내 제반문제에 대한 독단적인 일처리의 교수자질 문제로 빚어진 상업교육과 학우들의 교수퇴진운동이 그러했고, 학연동에 얽매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교수공채를 시발점으로 하여 일어난 최근의 전자공화과 교수퇴진운동 또한 그러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당국의 교수공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그저 부족한 숫자를 메우기위한 교수 공채가 아닌 진정한 학우들을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아울러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수를 정당성있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京】

근하신년

새바람 안고 떠나는
새해 새바다

새해는 뜻을 보다 높이!
새바람 큰바람 안아
더 멀리 떠나자.
그래서 더 많은 보람
실어 돌아오는 '91년이
되도록.
더 높고 넓은 뜻을 달자.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사대생 학과별로 활로 모색 활발 18일까지 수업재개 안될경우...전학생 유급

사대 학생회, 아직도 강경자세 교수

교원인·용고시제에 반발, 총파업 85일째(1월 4일 현재)를 맞고 있는 사법대학원생들은 이미 4학년들이 졸업시험과 논문제출을 끝내고 사실상 투쟁대열에서 물러나 가운데 수업재개 여부를 놓고 적잖은 혼란을 빚고 있다.

늦어도 올해 2월 8일까지는 사대생들의 성적처리가 끝나야 유급(1학기 70%이하)이 되지 않는데, 사법대학원생회(회장: 김권호·과교4)에서는 오는 20일까지 파업을 강행하고 수업재개 여부를 그 이후에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교무과 조교는, '일단 교수들의 수업이 시작되면 모든 사대생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1학기를 더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며 사대생의 수업재개를 촉구했다.

또한 국·영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3학년 학생들은 오는 7일부터 고교과목에 한해 수업재개를 논의중이나, 사대학생회의 공식입장에 변동이 없었던 수업재개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1·2학년 학생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대의 파업상황을 보면, 구립 27일 문교부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령'을 발표함에 따라 28일 3등세미나실에서 '개정교육공무원법의 무효화'와 임용고시 실천지침을 위한 교육주제 결의대회'를 갖고 △문제의 본질을 논쟁하고 적체책임을 밝히는 교원임용고시제 즉각 철회 △교육특별법 제정 △6공의 교육목적도 포기 등을 요구하며 도교위향의방향을 했다.

한편, 구립 21일에는 사대인의

하나됨을 위한 '완전승리쟁취와 교육주제 총단결을 위한 '90년 제주지역 교육주제 송년의밤'이 사대학생회 주최로 본관 구내식당에서 열렸으며 오는 8일에는 '중대안 완전분해를 위한 신년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처음으로 임용고시가 실시되는 1월 20일에는 '임용고시 저지를 위한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문교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력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 중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시무실에서 김종장은 신년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설계함과 동시에 대학인 본연의 모습을 찾아 교내외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학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화교육에도 내실을 기하는 물론, 대학발전 장기계획을 금년부터 구체화해 나감'이라고 '91학년도 대학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 문화상 수상 학술부문에 韓昌榮교수



지난해 12월 15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거행된 제주도문화상 시상식에서 韓昌榮(행정학과) 교수가 '91학술부문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韓교수는 30년간 노인복지문제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도문화상을 수상했는데, 韓교수의 박사학위논문 '韓國老人福祉의 行政과 法制에 관한 研究'는 노인복지법의 이론적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한번째 시집 출간 文忠誠교수

文忠誠교수(국어국문학과)의 열한번째시집 '방아깨비의 꿈'이 지난해 12월초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됐다.

'고추씨를 뿌리며' '나의 잠을

한편 구립 31일에 있었던 중무식에서 박창섭(도서관 기능직 10등급 방호원)씨, 윤연옥(농과대학 기능직 10등급 위생원)씨, 이광호(학생처 후생과 기생퇴원 2중 위생원)씨가 표창장을 받았다.

동계외국어 특강 실시

3일부터 30일까지

어학연구소(소장: 梁永洙 부교수·영어교육과)에서는 1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1학년도 제2차 외국어 특별학술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의 개설과목으로는 '아카데미토플'과 '영어순해' 2과목이 수강료는 각각 1만원이다.

흔드는 우리시대의 꿈 '새장속에서 노래하는 새에게' '이 세상 지나가는 길에' 등 4부로 나뉘어 모두 80여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이번 시집은 생명성에 대한 그리움을 주조하면서 자연과의 친화력을 엮어간 역사적 상상과 인간의 내면에서 들끓는 허위의식을 자연의 참된 자유스러움과 대비, 자유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이상을 갈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차리그전에 진출 본교 핸드볼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90대통령기 핸드볼 온산 치경 제2회 전국중학생선수권대회' 1차전에서 본교팀이 남자부 B조에서 선두를 차지, 2차리그 진출권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 본교 핸드볼팀은 1차대회 2일째인 25일 원광대와는 무승부를 거뒀고, 대회 4일째인 27일에는 삼공기어를 37대29로 제압, 대회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경희대를 한전치진 24대23으로 제압했다.

합격선 작년보다 2~3점 높아 신입생 비율 男 52.9%·女 47.1%

전체수석 數敎지원 김병호군 차지

호(서귀포)군, ▲농과대학: 수의학과 송호철(대기고)군, ▲해양과대학: 해양환경공학과 문장번(대기고)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양성대(남녕고)군, ▲공과대학: 정보공학과 강경아(서귀포여고)양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신입생 합격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졸업연도별로는 '9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76.5%, 재수생은 23.3% 기타 0.2%이고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52.9%, 여학생이 47.1%의 분포를 보였다.

〈표〉'91학년도 신입생 남·여 지원별 합격현황

대학	비율 상별	지 원 른		합 격 른	
		남	여	남	여
인 문 대 학		222	879	66	254
법 정 대 학		256	202	84	56
경 상 대 학		578	568	128	132
사 법 대 학		47	134	22	88
농 과 대 학		689	222	179	61
해 양 과 학 대 학		618	91	162	28
자 연 과 학 대 학		336	318	107	153
공 과 대 학		849	246	246	114
계		3,595	2,660	994	886

여성문제 폭넓게 다뤄 제6기 아라여성학교서

'제6기 아라여성학교'가 총여학생회(회장: 고영희·사학4) 주최로 구립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여학생휴게실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째날은 '딸의 날'로 지정, '꼭 알아야 할 성'이라는 제목으로 성교육을 실시하

고, 둘째날은 '아내의 날'로 인공유산에 관한 비디오 상영, 모성보호에 대한 기조발표 및 토론이, 셋째날은 '어머니의 날'로 '우리네 아이들'이라는 비디오 상영 및 타아문제 관련 기조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여성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모성보호와 타아문제를 주제로 발표보고, 지역문제로 제주

개발 및 골프장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갖기도 했다.

本 社 辭 令

記者 박진식(사교·1) 願에 의해 職을 포함 이상 1월 5일자

신입생 등록금 8.5%인상 재 학생도 비슷하게 오를듯

'91학년도 신입생등록금이 8.5% 인상되었으나 재학생 등록금 인상폭은 1%발달경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표〉'91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내역

()안은 지난해 금액과 인상률

계열별	입 학 금	수 업 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계
인 문 대 학	90,000 (84,000, 7.1%)	198,000 (185,000, 7.0%)	318,500 (291,000, 9.5%)	6,000	612,500 (566,000, 8.4%)
이 공 대 학	90,000 (84,000, 7.1%)	203,500 (190,000, 7.1%)	338,500 (304,000, 9.5%)	6,000	638,000 (584,000, 8.6%)
공 과 대 학	90,000 (84,000, 7.1%)	216,500 (202,500, 6.9%)	425,500 (385,500, 9.5%)	6,000	738,000 (681,000, 8.5%)

이는 지난달 24일과 26일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에 합의한 등록금 인상안을 교수평의회 및 기성회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신입생 등록금 인상내역을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는 평균 7.0%, 기성회비는 9.5%가 인상됐다.

기성회비의 인상요인을 보면 현재 부속한 교원 51명과 일반직인 1명을 포함하는데 따르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의한 경정경비의 절대부족과 행정대학원 신설에 따

다. 한편, '91학년도 신입생은 농업중앙회 북제주군지부 및 본교 출장소에서 오는 7일까지 등록을 필해야 한다.

한국교통 부회장에 피선 夫萬根교수

지난 11월 28일 교통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통총연합회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본교 夫萬根 기학실장(행정학과교수)이 대학교수대표 부회장으로 피선됐다.

同門 3명 등단 현춘식·양영길·강종완씨



양, 한국, 서울, 조선일보 등 5군데의 등용문이 있는데 현춘식 동문은 서울신문에서 '손들을 보면서' 양영길 동문은 중앙일보에서 '나의 발원'이 각각 당선돼 신년 벽두 중앙시조문단을 놀라게 하고 본래의 출신들의 문학적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한편 강종완同門(국문·'89卒)도 시대문학사주최 '제8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 시인으로 등단했다. (사진 左下)



현춘식(행정 27회·도청문화담당관)과 양영길(국문 20회·서귀고 교사) 동문(사진右)이 91년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됐다. 신춘문예 시조 부문은 동아, 중



한편 강종완同門(국문·'89卒)도 시대문학사주최 '제8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 시인으로 등단했다. (사진 左下)



○...좋은 게 좋은 것.
뜨거웠던 열기도 어느새 식어가고.
대학입학 합격자 발표로 발표장엔 인생의 희비가 엇갈려도, 작년부터 실시한 예비대학이 올해도 여지없이 열릴 것 같은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이왕 실시하는 것이라면 좀 더 알아야 된다는 노파심에서 아라주 한마디.
우선 작년 실시했던 예비대학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타대학의 사례중 본받을 것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듯.

○...올해의 슬로건.
'있을때 잘해'라는 한문란 유행어가 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했다는.
특목유아나 초등학교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지 하수 개발을 하고 현대판 봉이김선달 한진그 룹이 제주도 물을 비행기로 날라다 팔아먹다 보니 지하수에 바닷물이 침투해 잔물을 먹은 곳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
학우들이여! 올해 우리들의 투쟁목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찾기위해 물을 팔아 먹는 재벌기업을 타도하는 해로 삼 는게 어떻겠소.

○...원시시대로의 여행
바야흐로 원시적이고 미개적인 시대가 도 래하고 있다'에 알아보니,
요즘들어 경찰들의 고무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 가족수사로 자살에 이르는 지경까지 와있어 원시시대로

올해 슬로건

착각할 뻔.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에게 '상부적인 법정정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목숨에 버리는 경찰들은 더이상 자신의 양심을 고문하지 말 지다.

○...마운오리새끼
최근에 마운오리새끼가 출현해 관심이 되고 있는데,
이들하여 노동부라는 곳에서 '무노동 무 임금 위반'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권과

자본가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리 상 부상조도 좋지않은 너무하지 않소이까?
노동부는 노동자를 최대한 위하는 곳이 돼야함을 명심하시오.

○...햇볕 든 투사들.
학력고사날 교문앞에는 햇볕을 든 학생들이 이 민자당타도 및 종대안분해를 외치며 있었 으니,
차기 총학생회준비위에서 신입생들을 겨냥(?)한 홍보시위였다고,
차기 총학생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보 며 부탁 한마디 할까하오.
「조영웅실적 발상이 아닌 진정 국극의 대 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학우들 기다리는 캠퍼스.
방학을 맞이한 캠퍼스가 모처럼의 휴식을 취하고 있어,
새내기들의 입학시험도 끝나고 재학생들은 방학이달이 학교를 등재버리니 당연히 학교가 휴가를 얻은 것.
아라학우여러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학교가 닳을까 염 려하여 집에서 쉬는 마음은 알겠소만 보석은 갈 수록 빛이 나고 학문은 닳을수록 느는 것 이라오.

컴퓨터

제93기 개강 1월3일(목) 1월학기수강신청중!! (공유일도)

제12차 교육실습기자재 컴퓨터 도입
최신 SOFT WARE 1,000여종유용 실습실 공유일도 개방

1991년도 정보처리 기사·기능사 시험안내(상반기)
기사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27일 필기 1월 31일 필기 2월 4일 필기 2월 8일 필기 2월 12일 필기 2월 16일 필기 2월 20일 필기 2월 24일 필기 2월 28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7월 7일 필기 7월 11일 필기 7월 15일 필기 7월 19일 필기 7월 23일 필기 7월 27일 필기 8월 1일 필기 8월 5일 필기 8월 9일 필기 8월 13일 필기 8월 17일 필기 8월 21일 필기 8월 25일 필기 8월 29일 필기 9월 2일 필기 9월 6일 필기 9월 10일 필기 9월 14일 필기 9월 18일 필기 9월 22일 필기 9월 26일 필기 9월 30일 필기 10월 4일 필기 10월 8일 필기 10월 12일 필기 10월 16일 필기 10월 20일 필기 10월 24일 필기 10월 28일 필기 11월 1일 필기 11월 5일 필기 11월 9일 필기 11월 13일 필기 11월 17일 필기 11월 21일 필기 11월 25일 필기 11월 29일 필기 12월 3일 필기 12월 7일 필기 12월 11일 필기 12월 15일 필기 12월 19일 필기 12월 23일 필기 12월 27일 필기 1월 1일 필기 1월 5일 필기 1월 9일 필기 1월 13일 필기 1월 17일 필기 1월 21일 필기 1월 25일 필기 1월 29일 필기 2월 2일 필기 2월 6일 필기 2월 10일 필기 2월 14일 필기 2월 18일 필기 2월 22일 필기 2월 26일 필기 2월 30일 필기 3월 3일 필기 3월 7일 필기 3월 11일 필기 3월 15일 필기 3월 19일 필기 3월 23일 필기 3월 27일 필기 4월 1일 필기 4월 5일 필기 4월 9일 필기 4월 13일 필기 4월 17일 필기 4월 21일 필기 4월 25일 필기 4월 29일 필기 5월 3일 필기 5월 7일 필기 5월 11일 필기 5월 15일 필기 5월 19일 필기 5월 23일 필기 5월 27일 필기 6월 1일 필기 6월 5일 필기 6월 9일 필기 6월 13일 필기 6월 17일 필기 6월 21일 필기 6월 25일 필기 6월 29일 필기 7월 3일 필기

□기획연재(4) : 도내매립지 현황과 사용형태

용도 불분명한 매립지 20여곳 넘어

해안생태계 파괴·해수오염 가중시켜

당국,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해안매립 막아야... 주민의식 전환도 시급

글 쓰는 차례

1. 공동어장-피해와 보상
2. 제주개발과 골프장
3. 제주도 농민회 조직화 방안
4. 도내 매립지현황과 사용형태
5. 제주도화 재벌기업
6. 개발의 후유증 사례추적

I. 들어가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해안선의 길이만도 2백53km에 달하며, 해안을 따라 형성된 수려한 자연경관은 그 자체만을 놓고 즐긴다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취약구조가 해안을 따라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도민의 삶의 터전인 해안의 보전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도내 해안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매립되고 폐가를 처리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심한 물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둥의 경우만 하더라도 몇년전에는 명실상부한 제주시민의 휴식공간이었지만 (주)법양에 의해 불법매립된 지금은 인근지역 해녀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어장피해가 속출하는가 하면 해수면화로 인해 잦은 월파현상이 일어나 주변 해안선의 침하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수려한 해안경관을 기반으로 한 제주도 해안지역 개발은 「제2의 하와이건설」이란 비명하에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이며, 더군다나 개발의 주체가 외부 자본가들이어서 자본의 논리에 복종한 제주주민들은 개발이 가져온 파괴피해로 인해 크나큰 아픔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도 해안선을 경계로 조성된 각종 관광지는 자연적인 경관에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 관광객들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뿐 환경보존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는 외면하고 있어 예전같으면 즐겨찾던 친근한 우리 마을이 이제 낯설고 생소한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듯 제주관광개발이 주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해안선을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안의 오염·해안선의 변화 등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와 규제를 강화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부재인 실정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장 제1조를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효율적으로 이

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런 법조항과는 상관없이 몇몇 지역민이 주동이 되어 어촌계 또는 지역개발위원회(가칭) 명의로 횡집이나 관공휴게소 등이 경관 좋은 장소를 매립해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소규모의 매립은 관계 당국에 매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법화된 소정의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현재까지 버젓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서는 도내 해안 매립지현황과 사용형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략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II. 매립현황과 주제

1. 매립현황

도내에서는 북제주군에 19군데 남제주군에 2군데 등 20여 지역 해안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매립돼 있으나, 매립된지 오래되어 찾아내지 못한 매립지까지 포함하면 50여군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① 매립을 동귀리 동귀리의 경우 3백30㎡~9백㎡규모의 해안을 매립해 개인사업용으로 쓰거나 인근주민들의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5~6군데가 있었다.

동귀리의 주민 김모씨(56세)에 의하면, 「현재 해안수선이 자리잡고 있는 동귀리 1603번지 9백50㎡부지에는 5~6년전만 하더라도 해안선을 따라 4~5개의 초가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초가 자리엔 현재 3백여평을 매립해 세운 혁신수선이 들어서 있었다.

매립과정을 보면, 먼저 월파로 인해 패인 자리를 돌로 매립했으며, 30여㎡의 방파제를 건설해 월파를 일정정도 막은 다음 생선건조공장을 지은뒤 각종 생산물을 건조·가공 처리하고 있었다.

② 동귀리 동귀리 1620-4번지에 위치한 동귀리 집은 해안선을 경계로 본건물위에 가진

물을 따로 지어 해수를 끌어다 쓰고 있었으며,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바다로 직접 유출되고 있었다. 점유면적은 대략 1백70여㎡ 정도였다.

동귀리의 경우 이곳외에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무단 매립한 지역이 5~6군데(각 1백여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연탄재·건축폐기물·각종 쓰레기로 매립돼 쓰레기처리장같이 보였다.

③ 한경면 판포리 판포리 2969번지에 위치한 판포횡집은 해안가 일부를 매립한후 그위에 1백여평의 크기로 지어져 있었는데, 약 4백여평에 달하는 해안을 별도로 매립해 식당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한뒤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판포휴게소인 경우는 80여평 부지를 매립해 관광객을 상대로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길이 50여m·너비 10m에 달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방파제 형식의 전망대를 설치한 다음 휴게소를 찾는 이들이 바다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조성돼 있다.

판포횡집과 휴게소는 판포리 어촌계(어촌계장: 김일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익금은 마을어촌계 발전기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파괴한 일례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④ 매립을 애월리 애월리 1772-1번지 일대 공유수면 1만9백42㎡ 면적에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북군 주도로에 매립이 진행중이었다.

북제주군에 의해 90년 11월 1일 매립공사가 착공됐지만 탐둥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처럼 주민반발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3만여평이라는 거대한 매립공사인 만큼 그에 따른 피해와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곳이 목적대로 매립될 경우 값싸게 택지를 공급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피해와 반발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⑤ 조천읍 북촌리 북촌휴게소·해녀휴게소 등 3개소가 1백여평(주차장 포함)의 해안을 매립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매립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북촌리에서 경성을 살았다는 임모 할머니(68세)의 말에 의하면, 「전엔만 해도 바다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든든한 사람이 매운다며 놀러온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확실한 매립지임을 상기시켰다.

⑥ 구좌읍 김녕리 해안선을 따라 2백여㎡의 해안을 매



◇아름다운 도내 해안이 크고 작은 각종 불법매립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으나, 당국에선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립한 곳이 3군데가 있었다.

매립은 주로 돌과 자갈에 의해 이뤄졌는데, 마을 주민들은 「도로폭이 좁아 보행이나 차량소통에 불편함이 많아 매립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로폭은 5m가량돼 차량소통이나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게 보였을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나 불편을 느낄만큼의 대형차량이나 사람의 보행도 뜸한 곳에서 매립이유가 불분명한 듯 했다.

또한, 그외의 매립지는 각종 생활폐기물로 매립돼 있어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파괴됨은 물론 해수오염까지 야기시키고 있었다.

⑦ 한림읍 금릉리 해안선을 경계로 5백45㎡에 이르는 해안매립공사가 마무리 중이었다.

양모 할머니(65세)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인근 양식장에서 매립됐는데 매립한 땅속으로 배수관을 묻어 양식장으로 해수를 빨아쓰고 있었으며, 양식장 폐수를 배수관을 통해 바다로 유출시키고 있다 한다.

양식장을 찾아 갔으나 문이 굳게 잠긴채 기계 돌아가는 소음만 들릴뿐 관제자를 만나지는 못했으나, 명백한 불법매립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⑧ 한림읍 협재리 공유수면 50여평을 매립해 해녀탈의장을 건립했으며, 포구를 중심으로 3~4군데가 각종 쓰레기로 매립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지·오물배기금지」라는 경고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 생활폐기물을 비롯 각종 쓰레기로 해안이 매립돼 있었다는 것이다.

⑨ 한림읍 용포리 포구 방파제 사이로 1백여㎡에 이르는 해안이 각종 쓰레기로 매립돼 있어 심한 악취와 함께 주위환경을 해치고 건축물 찌꺼기·연탄재 등 생활폐기

물로 매립된 용포리 포구는 차라리 쓰레기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규제도 없는 실정이며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오물은 당연히 이곳에 버린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곳 역시 해안 간이도로를 따라 2백여㎡에 걸쳐 연탄재와 바위로 해안이 매립돼 있었다.

도로가 좁아 매립한 듯 보이지만 도로 확장을 위한 매립이 아닌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현지 주민들도 대개가 용도가 불분명하고 마을 환경에도 영향이 크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⑩ 애월읍 금성리 방파제 형식으로 2백여㎡가 너비 20m 규모로 매립돼 있으나 이는 선착장으로 가는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

원래는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수해로 파괴돼 어민들이 선착장으로 갈려면 마을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립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된 도로 구실을 하기는 커녕 수해나 태풍이 있는 날이면 다시 매립지가 유실돼 제차 매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도로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 마을 김모(43세)씨는 「전에 있던 도지사가 수해복구를 해주고 길도 놔준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버리니 돈 없는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도로포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⑪ 조천읍 조천리 조천 포구변에 약 2백90㎡에 달하는 해안이 각종 오물과 연탄재·돌로 매립돼 있으며, 바다 밑바닥에도 각종 오물이 뒤덮여 있었다.

이외에도 조천리 해안에는 약 50여평 규모에 온갖 쓰레기로 무단 매립된 곳이 4군데가 있었다.

⑫ 조천읍 신흥리

양식장 설치에 위해 해안을 매립해 해수를 차단시킨 곳이 3군데였으며, 차단된 세곳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악취가 가득했고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오염까지 야기시키고 있었다.

또한, 해안가에 개인주택(호주: 현 춘선氏·조천읍 신흥리 547번지) 한채를 짓기 위해 3백여평의 해안을 매립했는데, 이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와 주차장 마련, 그리고 주택기초 공사를 다지기 위한 매립으로 보인다.

한가지 의문은 전망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해 해안을 매립한 까닭이 주택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신흥리에는 해안선을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을 바다로 버려 매립시킴과 동시에 해수오염을 자극하는 곳이 3~4군데가 있었다.

⑬ 구좌읍 행원리 행원리 포구주변 해안선을 따라 1백여㎡가 각종 생활폐기물(연탄재·돌·바위등)로 매립돼 있었다.

더군다나, 이곳도 「쓰레기 및 오물투기를 금하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폐기물로 해안이 매립돼 있었다.

행원리에는 50여평 안팎의 해안이 각종 쓰레기로 매립돼 있는 곳이 4~5군데나 돼 이곳 역시 아름다운 해안이 각종 무차별 오물투기로 인해 파괴되고 있었다.

⑭ 구좌읍 평대리 평대리 동동에는 20~30평 규모로 매립된 곳이 4군데가 있었는데, 이곳도 대개가 생활폐기물로 매립돼 있었다.

마치, 해안이 마을공동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지을수가 없었다.

평대리 서동 역시 50여평 규모로 매립된 곳이 2~3군데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도 바다에 무단으로 오물투기 한 다는 게 잘못임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선뜻 나서서 오물을 수거하거나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평대리 해안매립지의 경우는 오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이었다.

⑮ 대정읍 신도3리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하며 해안선을 따라 3~4군데가 돌과 바위로 매립돼 있었다.

매립규모는 2백여㎡인데 공사로 인한 일시적 매립으로 보기에 정도가 심하며, 돌과 흙으로 범벅된 해수가 적조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⑯ 대정읍 일과리 서림장휴게소 건물앞 2백여평은 주차장시설을 위해 매립됐으나, 포장은 없고 흙만 덮여 있는 상태이며 주차장 주변 7백여평이 돌과 자갈로 매립돼 있었다.

방파제 축조를 위한 매립으로 보이나 수심이 얕을뿐 아니라 해저지반도 경탄치 않아 선착장으로서는 적합치 않은 곳이라 매립이유를 알 수 없는 곳이다.

인근에 서림양수장·선박제조장이 있어 그곳 사람들이 매립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제대로된 담뱃을 거부해 도무지 매립용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III. 매립지 사용형태 대부분의 도내 매립지들은 용도가 분

명치 않은 곳들 이었다. 대개가 마을쓰레기처리장 형태로 매립된 곳이 주를 이루었으며, 매립지제도 마를전체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투기함으로써 비롯된 자연매립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애월읍 동귀리의 경우는 작년까지 해안에 밀집돼 있어 월파의 위험을 막기 위해 매립한 곳도 여러곳이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매립해 사용하는가 하면, 도로확장이라는 말도 인되는 구실을 붙여 매립한 곳도 상당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도내 해안매립지는 용도가 불분명하고 적법여부도 명확치 않은데다 마구잡이로 공유수면을 매립해두는지에 대한 회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음모적으로 「조작은 매립이 「불법요한 후 패어내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천혜의 해안경관이 애꿎은 각종 쓰레기로 인해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고, 무자비한 돌·자갈에 머리 깨지는 폭행을 당하며 도내 해안은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IV. 문제점 및 대처방안

도내 해안매립은 아직은 소규모이나 점차로 증가되다 보면 끝이 없다. 무차별 매립으로 인한 문제는 「유수 해수오염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수오염은 외부 자본에 의한 개발의 후유증만이 아닌 지킴과 보존해야할 도민들이 먼저 해안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수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

해안매립이 주는 또다른 문제는 지리적인 입지환경·자연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에 동반하여 해역의 생물상이나 생물상의 분포가 심각한 변화 및 공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연안해역의 매립시에는 매립토사에 의하여 부착성생물과 포식성생물들의 저서생물은 거의 매몰되고 유영성생물은 매립지로부터 떠나게 되어 매립에 따른 수산생물자원의 부분적인 손실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로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해서 혹자는 안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순간순간에 제주도내 해안은 파괴되고 있음을 속히 자각해야 하겠다.

해안지역개발을 위시한 매립지의 증가를 막아 건강한 해안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안(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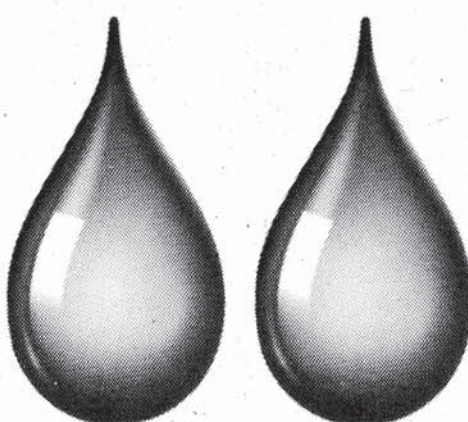
또한, 공유수면 무단점용·오물투기에 대한 단속규제책을 더욱더 제도로 강화하여 엄격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민들은 내고장 바다를 내가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식전환이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도내해안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자원의 「가나안」으로, 슬막하고 폭행당하는 매립으로부터 해방된 건강한 해안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전대룡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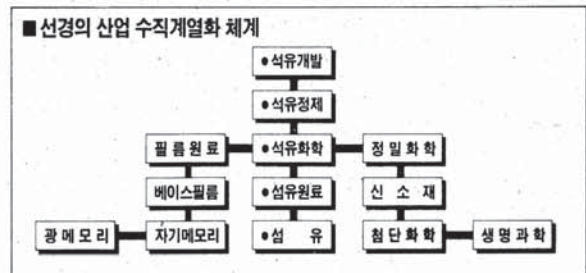
석유 한방울로 부터 선경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인류에게 중요하게 사용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유는 에너지로써만 아니라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됨으로써 현대산업의 총아가 되었습니다. 선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석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선경은 산유국의 꿈을 키우며 해외유전개발에 앞장서 북에엔 마르보 유전, 남미 에코도르 B-12 광구, 미얀마 불록 C 광구 등을 개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선경은 국내 최초로 「석유에서 섬유까지」 산업의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경의 수직계열화는 석유개발, 석유정제, 석유화학 기초원료에서부터 최종제품인 섬유 및 베이스 필름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일관생산체계를 말합니다.

이로써 선경은 21세기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가 함께 공존공영해야 할 21세기. 다가올 그날을 위하여 선경은 석유 한 방울로 부터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주)유공상사·유공해운

□ 르베 : 지역주민운동의 쟁점을 찾아—고산리 화약고

당국, 화약고 설치문제 전면 백지화 시켜야

「화약고 설치문제에 대한 협상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 없어요. 새로 선정한 위치에 대해 (주)영신과 화약고 설치 반대 추진위 사이에는 어느정도 의견이 좁혀졌지만 아직은 이 타협안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30여일동안 고산리 주민들의 화약고 설치반대 투쟁(위원장 : 고동일·고산리 1리장 직파대행)은 일단 용수리 2658번지에 설치 중이던 주영신(대표 : 김학준) 화약고 시설을 완전 철거키로 하고, 대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 설치한다는 선에서 잠정적인 타협을 보았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행동 중에서 유일하게 업자측과 마을 주민들이 서로 한발씩씩 양보한 선에서 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화약고 설치반대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얼마전까지 주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던 주민들이 이제는 아예 고산리지역에 화약고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지난해 고산리 1리 주민들의 절거농성을 했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구호들이 쓰인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화약저장시설내부에 트럭과 경운기가 당시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실효로 저지했던 흔적을 증명하고 있다.

고산리 1리 주민들의 화약고설치반대 투쟁은 (주)영신이 한경면 용수리 2658번지에 20톤의 화약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고를 시설하던 도중 주민들에게 이 사실이 발각돼 지난해 11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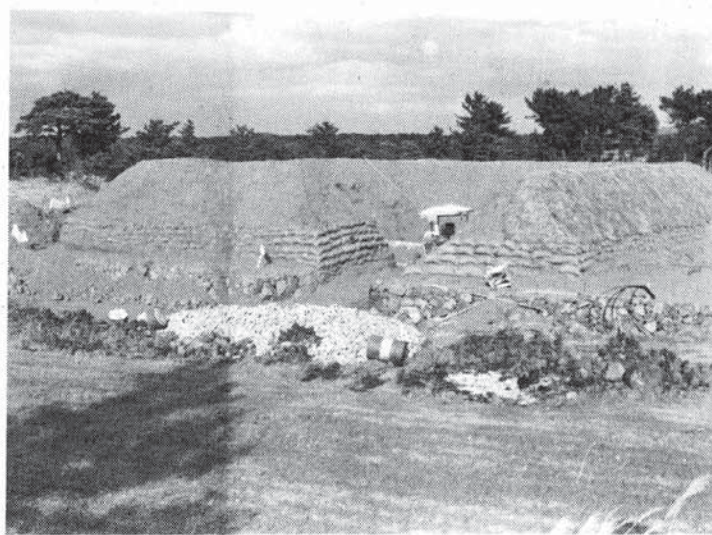
이는 (주)영신이 설치하려던 화약고의 위치가 고산리 1리 주박가에서 2백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그곳이 6천 6백볼트의 고압전주가 가설돼 있어 이미 폭발 위험에 따른 불안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

이다.

「공사현장을 지나던 몇몇 주민들에게는 비포장도로를 지는니 사료창고를 짓고 있다는니 하면서 우리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시켜 왔다고 고산리화약고 설치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말하고 있다.

얼마전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건설 과정에서 과학기술자가 행한 방식-주민들에게는 핵폐기물 처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의 건물을 건축중이라고 둘러대는 식-이 문제를 크게 악화시켜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던 적이 있다.

사실 화약고를 설치할 장소들인 (주)영신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용수리장과 고산리 1리장에게 개발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쥐어 줄 것을 약속하고, 화약고를 설치할 토지 주위의 지주들과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있어 처리물 받아내는 수법(물론 이 과정에서 동의서나 동의서를 받아내지는 못했다)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몰래 공사를 진행시켜오다 발각된 고산리 소재 (주)영신의 화약고

당시 화약고 설치에 대한 동의서에 날인했다는 고산리 1리 1리장과 개발지원금은 1천만원 상당의 개발지원금을

주겠다는 (주)영신측의 제안이 그리 싫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약고를 고산리 1리에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탓이었다.

고산리화약고 분쟁이 일어나자 관계당국에서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것이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도경에서는 주민들이 위에 든 법조항을 들고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화약저장용량을 20톤에서 9톤으로 낮춰 허가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11일 저녁에 출석요구서가 출두날짜가 이미 지난채 남아있더군요」

또한 경찰측에서는 지난해 11일 아침, 위원장 고씨를 비롯한 주민 12명을 기습연행하는 소이병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일로 인해 고산리 1리 주민들은 지서를 점거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주민들 하류금당국이 업자만을 두둔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집단행동의 원인을 알고 보면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주의에서 거의 발생하고 있듯이 이번에도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행정과 소극적인 일처리에서 발생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고산리 화약고 설치도 주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설치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사전조사없이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는 후에야 사후 조치를 한 것을 보면 집단행동의 근원이 관계당국의 허가과정

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약고와 고압전주의 실제 거리는 78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한다는 진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밟아 진행할 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경우도 사업추진에만 급급,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제쳐놓고 비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무시해온 것 같다.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가 했던 고산리 화약고 분쟁은 이제 업자측의 입방적인 통고, 법적 신방성이 없는 해결책 제시라는 주민들의 주장으로 접어들어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하다.

단순한 생존권 문제에서 출발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의 이제는 재야까지 직접 참여하는 복잡(?) 문제로 커지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이전, 그동안 힘없는 주민들이 얼마나 강경통치에 시달려왔고, 입은 있으나 할말을 못하고 살아왔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절경일 것 같다.

이러한 예는 지난해 예레동 하수정화처리장 확장공사나, 분개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집단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야지요. 당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고씨의 주변을 행정당국이나 각종업자 주체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지요.

인간은 주위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어떤 변화가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고산리화약고 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단행동의 당국의 허가과정 및 사업시행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만큼 당국에서는 화약고 설치문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는 것이 그간 쌓인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미 실효된 공기관으로서의 도의식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양원철 記者】

□ '91학년도 총학생회에 바란다.

정치투쟁만이 전부가 아니다
학우대중의 관심사 정확히 파악...실행시켜야

정부당국에서 학생회를 탄압하기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분리납부해 하도록 각 대학에 지시한 이후 육지부 대다수대학의 학생회비 납부율은 학기를 거듭할수록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학생회의 사업들이 학우대중의 요구를 결집한 사업이 아닌 단지 학생회 학우대중을 상대로 자기들의 정책을 선전·선동하는 쪽으로만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우대중과 학생회와의 거리감은 점점 심화됐고,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학우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총학생회가 학우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학우대중이 요구하는바를 제대로 수렴해 이를 실현시켜야만 학우대중이 학생회에 갖고 있는 불신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 우선 학우대중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도출해 내는 게 첫째 과제이다.

그럼 학우대중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크게 네가지로 집약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교과과정 개편문제, 학생복지문제, 취업진로문제, 전반적인 학내문제 등이다.

▲ 교과과정 개편문제

학문·사상의 자유가 대학자율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정을

통해 발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나가는 학우들에게 교과과정에 대해 물어보면 「선택과목의 폭이 한정돼 있어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수강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교과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 336·7호부터 시리즈로 연재했던 「교과과정 올바른 개편을 위한 기획」에서도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은 잘 나타나 있다.

즉 인간중심의 교육과 민족주체성 교육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개편은 실로 학원자주회의 선결과제임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과정개편의 필요성을 모든 학과가 공감하고 절실히 의식하고 있는 만큼 총학생회는 교과과정 개편과정에서 학생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그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뿐만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소모적인 정책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과목을 과감히 배제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세계관을 학습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설계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는 시종일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교과과정개편에 학우대중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내외 공식적 협의기구를 설치해 학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당국과 다각적협의를 통해 학우대중의 관심사인 교과과정개편을 실현시켜야할 것이다.

▲ 학생복지문제

제2 학생회관이 완공되면 530석 규모의 식당이 설치되므로 그동안 문제시돼왔던 본관 학생식당의 문제점들은 해결되리라 본다.

그동안 학우대중들은 휴식공간의 부족함에 관심을 가졌었다. 이외의 휴식시설이 부족한 이때에 총학생회가 수목모으기 운동으로 학교를 꾸르게 하여 휴식공간 확충에 일조를 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발전과 도서관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운동들은 학우대중의 애교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사업이라 여겨진다.

▲ 취업진로문제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보면 취업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눈앞에 닥치게 되는에 취업진로문제 역시 상당수의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취업문은 한정돼 있고 이를 원하는 사람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의 심각성을 「취업전쟁」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교는 지방대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업체의 인식부족과 취업정보의 미비등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취업문제를 학교측(취업대책위원회)에만 위임할게 아니라 학생대표기구인 총학생회 자체내에서도

취업에 관한 특별기구를 두어, 본교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파악하고 취업대상자들에게 기업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안내서 발행을 강화하여 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펴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각 기업체와의 정보교환과 동문 등의 여러 활동을 찾아 타지역보다 비교적 유리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진로문제에 세심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 전반적인 학내문제
그동안의 학생회가 너무나 편협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왔는데도 과언은 아니다.

학우대중의 마음속에 총학생회가 정처무정인 몰두해 왔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때에 학원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둘 해소해 나가는 것도 총학생회가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네가지로 집약해서 살펴보았듯이 총학생회는 이러한 학우대중의 관심사를 잘 수행해 내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관심사를 찾아내어 학우대중의 의사에 기초한 사업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우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수행했음에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대중의 신뢰감은 쌓일 것이며 학우대중이 바라는 사항방향을 총학생회가 뒷받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상범 記者)

사람들 최고령 합격자 양봉호씨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용기 얻었으면

이는 학생들을 보면 언짢고 괜히 서글퍼지지만 술을 마시면서도 학생답게 무언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속에서 대학생의 참모습을 발견할때면 그렇게 흐트랄 수가 없다」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물건사러 가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는 그의 평소 생활신조는 「부끄럼없이 오로지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자리에 나오기가 무척 부끄럽고 망설였지만 기사가 나간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일 것이지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고 나왔다는 그의 겸허한 모습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버를 삼게 한다. (東)

「9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최고령의 나이로 합격의 결실을 맺은 양봉호(오현고후·40세)씨를 만났다.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합격소감을 가름하는 그는 술을 좋아하는 학우들에게 이미 얼굴이 일렁일 학사주점 「가마골」, 「바탕골」의 인심품은 주인이저씨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시험에 합격했어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해야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계속 남아 있어 이번엔 대학입시를 치루게 됐는데 뜻밖의 소식에 그저 덩달할 뿐」이라고 다시 한번 결심을 보인다.

2남1녀의 자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늦에는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생활수단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입시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정진력이 강해왔는데 무엇보다 부인의 내조가 여러모로 많은 정신적 도움을 주었다고

「입시준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일반 수험생들과 다른 상황에서 근 20년 동안의 입시경험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은 시간의 불충분으로 인한 자습부족이었다. 그러나 영어과목은 평상시 접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지만 수학과목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간이 불충분해 머릿속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그제 아쉬울 뿐」이라고 말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오로지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문화종류의 서적을 많이 접해 평상시 문화에 대한 열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며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힌다.

평소 학사주점을 경영하면서 바리본 대학생의 풍족도에 대한 물음에 「다수는 아니지만 간혹 일반인들이 유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대학생으로서 수준이하의 행동을 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도시, 모스크바—

예술도 혁명도 모두 과거의 한부분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 넘치던 위대한 혼은 작은 생활들 속에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스크바는 꿈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길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젊음의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의 첫번째 한국인 학생인 박성준(20)씨는 모스크바에서선 서울에서선 젊음의 꿈 거가서 비롯되는 가능성은 같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가능성은 변화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매순간 일어나는 건 아니죠. 물이 계속 끓다가 어느순간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절망과 꿈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의 말대로 러시아혁명도 그런 종류의 변화인것지모른다.

“모스크바도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꿈을 키우는 낯선 한 한국청년처럼요.” 모스크바 대학이 서있는 레닌스키 언덕에는 간간히 내리는 진눈깨비와 함께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북구의 겨울은 유난히 길어요. 하지만 모든 생명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제 젊음의 가능성과 노력, 그리고 꿈도 멈추지 않을거구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이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광으로 소개하고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명동 108-2 제일기획 제작12국 대학지광팀 TEL 724-0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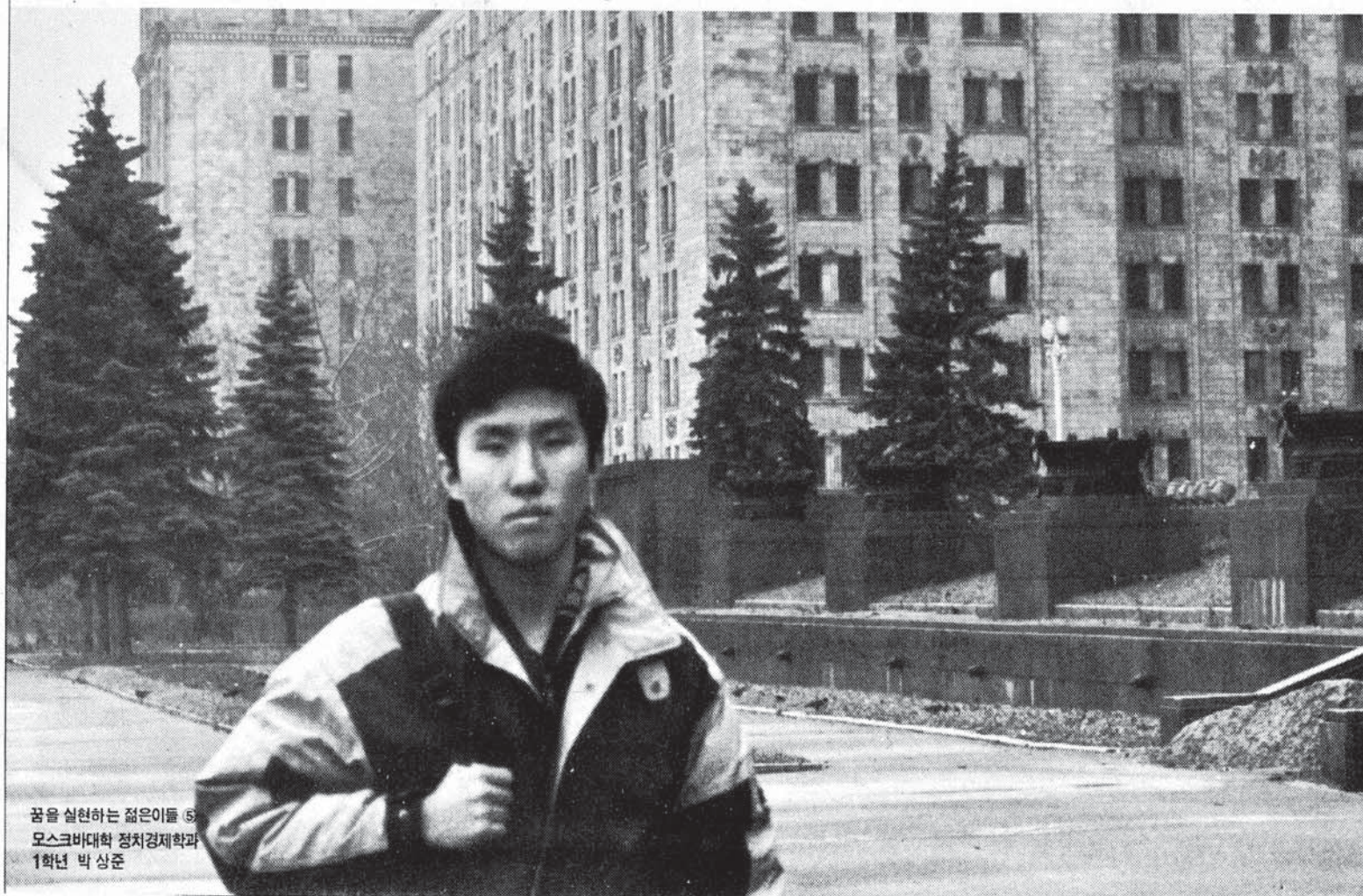
인재와 첨단기술의



● 제작에 협조하신 KOTRA와 관련된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내 젊음의 꿈은 모스크바의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모스크바대학 정치경제학과 1학년 박성준

로 표현하고 있는 절이나(市승적은 1955년임)地名 '어승성'을 '어승성'으로 쓴 점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C·D형 작가중에서 다른 작가들의 경우보다 金石範은 좀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는 출생지가 일본이며(부모의 고향은 제주도임) 14세 이후 몇차례 제주도를 방문했을뿐 제주도에 장기간 체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4·3을 작품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지만, 나는 역시, 오늘날에도 제주도에, 나의 고향 땅에 '취재'조차 하러가지 못한 채 집필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까지 40년 가까이 제주도를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상상력에 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火山島』 후기)

이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 지니는 몇가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더불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4·3을 미제형하고 현상위제도 못함으로 인해 구체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몇가지 예

〈表 2. 시기구분〉

구 분	기간 및 분류기준
(제1기) 發興의 시기	~1978(『順伊삼촌』 발표전)
(제2기) 드러냄의 시기	1978~1987(『順伊삼촌』에서 6월 항쟁까지)
(제3기) 多重化, 多樣化의 시기	1987~(6월항쟁 이후)

〈表 3. 작가의 4·3작품수, 출생지, 출생시기〉

작가	출생지	출생시기	4·3작품수(%)
高時洪	제주도	1948년	5편(8.3%)
郭鶴松	평안북도(越南함)	1927년	1편(1.7%)
金石範	제주도	1952년	2편(3.3%)
김일우	북한(?)	?	1편(1.7%)
吳景勳	제주도	1944년	2편(3.3%)
吳成贊	제주도	1940년	17편(28.3%)
吳永壽	경상남도	1914년	1편(1.7%)
韓林花	제주도	1950년	2편(3.3%)
玄基榮	제주도	1941년	7편(11.7%)
玄吉彦	제주도	1940년	18편(30.0%)
金石範	日本 오오사카	1925년	4편(6.7%)

로 '구덕'과 '허벅'을 혼동하여 표현한 점(『火山島』Ⅲ, p.309), 飛揚島의 위치를 어색하게 묘사한 점(『火山島』Ⅴ, p.104)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군대에 일본적인 발상도 보여, 4·3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배경을 빌린 일본식 私小説(ich-roman)의 느낌이 많은 지적들이 있다.

북한작가(?)인 김일우도 『삼사람들』에서 상당한 한계를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라면 누구나 맑고 따뜻하고 목가적인 생활과 전설이 가득차 있는 섬으로 생각하는데…… (p.11)

……기후가 따뜻하고 수산물이 풍부하고 마소가 많고 각종 과일이 흔하고 말하자면 더할나위 없이 살기좋은 고장ियो. (p.31)

앞의 예문은 작중인물 '동석'(제주출신)의 생각ियो. 뒤의 것은 '연대장'의 말이다. 위의 예문은 그 훨씬 후의 시점에서 제주도를 보는 것이지만 당시의 제주도를 말한 것으로는 너무 비현실적, 비사실적이다. 해방직후까지의 제주도는 매우 살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오늘날처럼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어도 이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제주도에 대한 불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삼사람들』은 그밖에서도 비사실적인 면이 많다. 말을 타고 상호 연락하는 빨치산의 모습이나, 당시 '뭍'이었던 제주를 '섬'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어색한 방언('와'이형 오곡하노. 추운디)(p.61), "무사 그립수파"(p.86), "와 그립수광?"(p.92), 유지한 사건의 전개, 소설구성상 너무도 많은 사건의 무연성 등이 결합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학은 역사나 신문기사가 아니기에 반드시 사실과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성의 결여(경험적 사실과의 불일치)는 그 작품의 진실성과 예술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D형 작가들의 특성은 反帝·反美的 성향이 다른 어느 작가들보다 강하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I)B형의 경우

B형의 작가들은 모두 6월항쟁 이후(다중화, 다양화의 시기-제3기)에 4·3을 본격적으로 작품화한 작가들이다. 이들 중 金石範과 韓林花는 전혀 4·3을 겪지 못했고, 高時洪과 吳景勳도 각 48, 44년생으로 당시 유아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4·3미제형 세대 또는 4·3이후세대라 해도 좋을라 생각된다. 이러한 여건으로 이들 B형 작가들의 4·3소설은 증인과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지라난 환경이 4·3의 무대인 제주도였기 때문에 C·D형 작가와는 구



별되지 않을 수 없다.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金石範은 4·3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작품에 투영됐다 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順伊삼촌』을 쓰게 했고, 그런 용기를 부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많은 4·3소설을 쓴 玄吉彦도 유년기의 4·3체험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추억들은 수많은 주검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토벌대에 쫓겨 마을을 떠나 들과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동네로 돌아왔을 때, 아직도 모락모락 가느다란 연기 나는 불탄 집터에서 소리내어 울던 그 기억, 살기를 띤 사람들의 그 모습, 총소리에 이어 하나 둘 죽어가는 동네 사람들(『海風과 돌쩌발의 성긴 삶』, 『월간朝鮮』 1989. 7월호, p.546)

玄吉彦은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집단주의의 횡포에 짓눌린채 살아가는 개인의 진실을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끌고 간다. 그는 玄基榮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향으로 소설을 쓰는데, 이에 대해 金永和는 '玄基榮이 고발적 성격이 강한 대신 玄吉彦은 사건의 음미에 더 초점이 있다. ("기록자의 관측", 『濟州文學』제13집, 1984, p.204)고 비교하고 있다. 현준만도 '玄吉彦이 역사적 사실을 배경화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자신의 관심을 쏟는 것과는 정반대로 玄基榮에게서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주인공이 된다('역사의 전설화'를 막아가는 기록자', 『현대소설』 1990. 봄호, p.35)고 두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吳成贊은 유년기의 4·3체험이 玄基榮·玄吉彦 만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저의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마을이라고 할 수

〈表 4. 작가의 유형〉

구 분	작가	4·3체험 여부	출생지(생활근거지)
A형	玄基榮·玄吉彦·吳成贊	체험	濟州
B형	高時洪·吳景勳·金石範·韓林花	미 체험	非濟州
C형	(郭鶴松)·吳永壽		속지부
D형	金石範·김일우		국외·북한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4·3을 문학작품의 소재로 삼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 되어 직접 현장에서 다른 마을이 겪은 4·3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4·3과 나의 문학", 『月刊濟州』 1990.5월호, p.33)

이들 A형의 작가들은 직접적인 체험으로 인해 4·3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작가들이지만, 한편에서는 그 체험으로 인한 한계를 스스로 지을 수도 있을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4·3의 상처 문제를 얘기할 때 유년기에서의 자아의 성장 문제를 그것과 결부시켜 어쩔런 너무 순화되고 느껴질 정도로 고통과 화해를 해버리는 듯한 경향도 없지 않음은 충분히 경계해야 할 점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 소설의 작가들은 작가의 출생지(또는 생활근거지)와 4·3체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바, 특히 4·3 소설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작가들의 생애와 그 환경이 작품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4·3소설의 소재가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것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4. 구성형식과 이념의 문제

가. 구성형식

4·3소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전개형식상 露幕형식, 회상형식, 회상형식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액자소설과 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觀點(point of view)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귀환'(현재의 어떤 계기)→회상→현재의 전개와 같은 형식을 말한데, 이것은 분단소설의

일반적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속하는 소설로는 『順伊삼촌』 『歸鄉』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들의 어머니』 『沙浦에서』, 『해야 솟아라』 『저승문』 등 상당수 있는데, 이같은 경향은 분단문학의 성격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70년대 이후 분단문학은 귀향형식의 회상형 줄거리를 바탕으로 민중의 피해의식을 증언하는 것이 구조를 이뤘습니다. 이때의 '민중의 피해'란 민중 자신은 아무런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았는데 전쟁의 혼란이 민중을 괴롭혔다는, 어느 전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전쟁일반의 비극을 벗어나 민족분단, 동족상잔이라는 실체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任軒永의 2인, 『한국문화와 統一意識』 『現代文學』 1990.7월호, p.38)

떠나온 고향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처음부터 그것이 주는 느낌이 유다르다. 귀향은 어떤 이유론 한동안 있었던 과거로의 귀향이기도 하다. 그것은 다시 현재와 만날 수 밖에 없는 괴할 수 없는 만남인 것이다.

귀향형 소설은 귀향을 통해 과거를 만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 잊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문제를 제시하고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짜여진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회상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이같은 귀향형식의 회상형 소설은 주인공이 사태의 전면적 피해자가 아니면서 기록적 추적이나 회상에 의한 4·3의 흔적

를 찾는 작품이 되고 있다. 귀향형 소설의 구성형식이 4·3의 총체적인 역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 되어 직접 현장에서 다른 마을이 겪은 4·3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4·3과 나의 문학", 『月刊濟州』 1990.5월호, p.33)

III. 결 론

지금까지 4·3소설의 작품과 작가, 구성형식과 이념의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4·3소설은 직접적으로 제주의 4·3을 소재 또는 제재로 다룬 작품들을 말한다.

(2) 4·3소설의 시초는 1960년 吳永壽의 『後日誌』로 보이나, 1978년 玄基榮의 『順伊삼촌』 발표 이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3) 1987년 6월항쟁 이후 교묘작가의 작품과 북한소설이 소개되었으며 작가층도 두터워져 4·3소설은 多樣化, 多重化했다.

(4) 4·3소설의 작가를 크게 제주출신과 비제주 출신으로, 체험작가와 미체험작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각각의 작품세계는 확연히 구별된다(A형: 玄基榮·玄吉彦·吳成贊, B형: 高時洪·吳景勳·金石範·韓林花, C형: 郭鶴松·吳永壽, D형: 金石範·김일우).

(5) 4·3소설은 귀향형 회상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취재형소설도 동일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이제까지의 4·3소설은 이념적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4·3의 전반적인 사건 성격과 현재의 경직된 사회구조(이념에 부자유스러운 사회 상황) 등과 관련이 있다.

이상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았다. 작품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징에 대한 고찰에서는 구성형식과 이념의 문제 등

심사평

문학논문 쓰려한 자세 돋보여

문학평론이 일치언어인 문학텍스트를 해석하고 교정하고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라면 문학평론은 문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글이다. 평론이 논문을 닮아서도 안 되고 논문이 평론을 닮아서도 안 된다.

金東潤의 〈4·3소설에 관한 一考察〉에는 문학평론을 쓰려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문을 쓰려한 필자의 태도가 곳곳에 잘 나타나 있다. 4·3문학 중에서도 특히 4·3소설에 초점을 모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섭렵하고 이것을 논리 전개의 실증적 자료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리 전개 자체도 비교적 성실하다. 더욱이 4·3소설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고 있어서 이에 따른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4·3소설에 대한 이 정도의 체계적 접근이 아직까지 없었으므로 4·3소설에 관한 연구논문으로서도 나름대로

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창훈의 〈茶山 漢詩의 寫實性 研究〉는 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상비평식의 감상에 치우쳐져 있는 점이 큰 흠이다. 또한 논의가 중복되어 있어서 목차에 들어 있는 항목간의 유기성이 약하다. 그러나 다산의 문학사상을 작품설명의 근거로 삼은 점은 좋다고 본다.

논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는 金東潤의 〈4·3소설에 관한 一考察〉을 단선적으로 한창훈의 〈茶山 漢詩의 寫實性 研究〉를 가작으로 정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번의 제1회 백록 학술상 일반논문 부문에는 자연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의 응모작이 한 편도 없었음을 부기해 둔다.

김병택 인문대부교수
김상조 인문대 조교수

당선소감

“어쭙잖은 시도, 성과있어 기뻐”

'4·3'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이 섬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무자비한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채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갖가지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서 꾸준한 계속되어왔다. '4·3소설'도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의 일환 또는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략 4년의 학업을 정리하면서 역부족이 될 뻔 했을 앞선시도 전공과 연관지어 4·3에 관한 글을 나름대로 써 보고 싶었

다. 결과적으로 나의 어쭙잖은 시도가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물론 나의 글은 탄실하지도 못하고 모자라는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이제 내가 자신에게 부과한 과제가 된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문학과 사회현상의 상관성에 대해 좀더 체계있게 접근해보고 싶기도 하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3의 전반적인 사건의 성격이나 현재의 경직된 사회구조, 이념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사회상황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4·3이 이념민의 총돌이 아니라 제주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사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4·3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작품들이 정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점 등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4·3소설들은 제주의 박해와 수난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상당히 솔직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향의 수난과 민족의 진로가 일치된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서 야기된 대부분이 제주출신인 4·3 소설 작가들의 고뇌와 번민에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괄적이라 할 수 있는 사항만 제시한 감이 없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4·3소설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우선, 역사적 사건인 4·3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작품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즉, 작가는 4·3의 발발 배경과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4·3의 실질적인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떤 성격으로 진행되었는가, 봉기지도 부들의 당시 활동과 그들의 봉기후의 행동은 어땠는가, 당시 제주민중의 생활상은 어땠으며 제주민중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죽어갔는가, 미국 또는 미군정, 단독정부 수립의 주역들과는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4·3의 현재적 의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작품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들의 작품활동이 정치적, 이념적 요인으로 제약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작가들도 이념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것을 우회해서 피켜가려고 해서는 안 됨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장편소설 양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는데, 장편양식은 중·단편 양식의 한계에 의한 오해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趙廷來의 대하장편 『太白山脈』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여순사건과 6·25를 다뤄 문학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름대로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다음으로,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문학적 보편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4·3소설은 분단문학의 범주를 넘어 평민의 민족문학의 단계에 이르는 정서를 작품에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서의 무조건적인 회화나 응서(기령 이념적인 문제를 혈연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 또는 반대의 경우인 무조건적인 대립과 충돌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를 찾아내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회화 또는 문제해결의 계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 4·3소설은, 휴머니즘과 분단상황의 극복(통일지향)을 지향하여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민족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작품화 노력의 바탕위에서 전개될 때 민족통일의 지평 위에서야 당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면 관계상 필자의 양해를 얻어 각주와 참고문헌을 생략했음 - 편집자주

제11회 백록학술상 일반논문부문 가작

茶山 漢詩의 寫實性 研究

—「田間紀事」를 중심으로—

I. 序 論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조선 후기 한국 사상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實學을 집대성한 大學者로 평가되는 이다. 그가 남긴 방대한 文集 『興猶堂全書』를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 법률, 지리, 경학, 언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탁월한 사상가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2천 5백여수의 주옥같은 漢詩도 포함되어 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던 燕巖 朴趾源과 더불어 일찍이 實學派 文學을 대표하는 詩人으로서도 주목되었다.

茶山의 漢詩는 그 방대한 분량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文學 특히 漢詩에 대한 연구는 홍익성에 의한 연구 필요성 언급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번역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茶山 漢詩의 특징은 그의 實學思想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實學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經世致用·利用厚生·實事求是 세 유파로 나누어 진다. 일찍이 星湖 李篈의 유교를 통해 實學에 눈뜨기 시작한 茶山은 인맥으로는 經世致用派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이 후에 利用厚生派의 교류, 여러 經學書에 대한 實事求是의 研究 등을 통해 학문수준이 실학의 3개 유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를 실학의 집대성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실학자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흔히 '社會詩'라는 명칭에 분류되는 일군의 漢詩들이며, 이들은 항상 국가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작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茶山의 '社會詩'들은 그의 현실관 내지 세계관을 뚜렷이 담고 있는데 그 형식이 내용면에서 다른 일반의 漢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즉 '詩經'을 전범으로 한 詩經體의 형식과 인물과 행동이 나타나는 서사적 내용 이 그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茶山 漢詩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連詩 '田間紀事'의 6수이다. '田間紀事'는 茶山의 康津流配 시절에 쓰여진 연시 형태의 작품으로, 그의 시경론과 의식 및 시적 실천이 모두 집약된 하나의 상징적 전형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詩經論'을 포함한 茶山의 文學思想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작품분석에서는 '사실성'의 구현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田間紀事'는 詩經體의 형식과 서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茶山 漢詩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구명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작가의 문화적 관심이 작품에 얼마만큼 투영되어 형상화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II. 茶山의 文學思想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문학 특히 詩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태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동감한다면, 일차적 연구로서 작가의 文學思想적인 면을 검토하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茶山의 경우 '조선시 선언'을 비롯한 독특한 고 주체적인 문학정신으로 하여 그 연구는 더욱 강조된다.

여기서는 작품 '田間紀事'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詩經論을 중심으로 그의 文學思想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應事接物 관점에서의 文以載道論

조선조 사회는 한 마디로 性理學의 질서하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원래 성리학이란 주로 철학적인 문제를 관심의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조선조의 성리학은 단순히 철학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중세적 메테올로기로 기능했다. 실학은 본래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반발로 시작된 것이나, 그 사회질서 및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茶山의 '田間紀事'의 사실성을 규명하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처럼 中世와 近代의 가교적인 역할은 茶山의 文學觀에도 드러나고 있다.

모든 문화이론의 근거에는 그 전제를 지탱하는 문화관·인간관이 존재한다. 茶山의 경우 이는 '詩言志' '文以載道'라는 전통적 명제 속에 집약된다.

文은 도를 실는 것이고 詩는志를 말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도가 세상은 바로 잡고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그 뜻이 탕미에 세운 바가 없으면 비록 그 文이 아담스럽고 詩가 아름답더라도 이는 빈 수레를 물면서 소리를 내는 예이고 관대가 풍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어찌 傳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茶山에게 있어 詩와 文 즉 文學은 그 상위의 가치인 道의志에 종속된다. 즉 그는 전통적 성리학 문화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로서의 茶山의 가장 큰 차이점은 '文以載道'에서의 道의 개념이 어떠한가에 있다.

성리학에 있어서 道는 天理를 가리키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이 중시되며 더불어 학문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

의 在下者에 의해 통치자가 풍간·비판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의 '社會詩'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개인의 이해에 연유하여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술적인 개인문학을 배척하고 오로지 개인의 경험과 민중의 어려움과 현실사회를 소재로 하여 사실주의의 기법으로 공리적인 면을 추구했다. 시가 예술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하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리적인 시를 쓰면서 앞서 이야기된 자신의 시론을 실천했다.

茶山이 '詩經'을 풍자의 비판적 언어로 재인식하고 이에 따라 그의 시를 창작할 때 그 전범을 삼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관찰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비판·풍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의 작품에는 사실성이 구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茶山의 '詩經'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작품에 사실성의 구현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꽃·나무·새·짐승·벌레 등 할 것 없이 모두 화법의 묘리에 맞아서 섬세하고도 생동감이 강하다. 저 서투른 화가들이 모자라진 붓에다가 먹물만 뚝뚝 찍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비판·풍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의 작품에는 사실성이 구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茶山의 '詩經'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작품에 사실성의 구현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것은 윤용이란 사람의 화첩에 발문으로 쓴 글인데,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茶山의 예술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위에서 '꽃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는' 화가들을 비판한 것은, 대상을 보고 느낀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작가의 주관에 따라서 객관적인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즉 일차적으로 사물의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러하게 대상이 작가와 대립해 있는 현실의 경우, 현실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 현실의 기본적인 양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현실의 일부분만 보고서 그 것을 전체로 착각하거나,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자기의 생각과 우연히 일치할 때 그것을 기본적인 구조라고 주장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한 셈이 된다.

오킨 茶山은 '詩經'을 자기나름의 哲學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風의 의미를 두가지로 해석 '詩經'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해는 그의 시작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나름의 독특한 '관찰 문화론'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곧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 사실성을 구현하기에는 그 핵심적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III. 「田間紀事」의 寫實性

茶山 漢詩의 성격을 대표하는 連詩 '田間紀事'는 그가 康津에 유배되어 있던 1809년에 쓰여진 것으로 詩經體의 서사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시편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적어놓아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기사년에 나는 茶山 초당에 머물고 있었다. 이 해에 큰 가뭄이 들어 지난해 겨울부터 봄을 거쳐 금년 입추에 이르러까지 붉은 땅이 천리에 연했다. 들에는 풀 한 포기 보이지 않았고 유유히로는 유람인들이 길을 매워 논드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형상이어서 살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생각컨대 나는 죄를 지은 몸으로 멀리 유배된 몸이라 사람속에 끼이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오매초록 조정에 비쳐려 해도 방도가 없고 유민도 한 장도 바칠 수 없었다. 때때로 내가 본 것을 적어서 시를 지었다. 처량한 스톨리마나 귀뚜라미와 더불어 풀밭에서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사물이지만, 성정의 울바른 것을 구해서 천지의 화기를 잃지 않으려 했다. 오랫동안 써 모은 것이 몇천되기에 이를 '전간기사'라 이름했다.

유배지의 혼란을 적시하지 않고 백성들의 참상을 4인시로 절실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이다. 이는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동일시할 수 있었던 茶山의 性情과 이를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던 '詩經論'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이 합치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낙네들이 쑥을 캐어 죽을 쑤어먹는 정경을 그린 '采蒿', 가뭄으로 모를 移殖할 수 없

게 되자 모자리의 모를 뽑아 버리며 통곡하는 슬픔을 그린 '拔苗', 가뭄으로 논에다 메밀을 代播하려고 하면서도 메밀종자를 착복한 현령을 풍자한 '蕎麥', 보리죽을 쑤어 먹기도 어려운 흉년의 서러움을 묘사한 '蕎麥', 탐관오리를 승냥이와 이리로 비유한 '豺狼',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려 자 어린 남편가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것을 그린 '有兒' 이상 6편으로 되어 있는 '田間紀事'는 시와 산문의 중간적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을 지니고 있는 서사적 성격의 漢詩이다.

이런 형식상 이유로 그의 시는 종래 일반의 漢詩와는 다르게 사실성의 구현이라는 독특한 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사실성의 기저에는 작가의 비판성과 합리성이 깔려 있다.

'사실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인식문이라 할 수 있다. 영결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성은 '전형성'과 '묘사의 디테일성'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런 개념은 서구적 개념 이긴 하지만 문학에 있어서의 사실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실성의 구현에 있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실을 전부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典型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전형적 인물, 전형적 환경의 창조를 통해 작가는 그 시대 현실의 전체적인 양상을 대표시키는 것이다. 정확한 전형성을 창조한다는 말은 현실을 개괄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 능력은 현실을 정확히 관찰한 데서만 얻어질 수 있다.

묘사의 디테일성은 소재의 다양화, 다양한 시어의 구사, 서정적 묘사, 인물성격의 묘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전형성'이나 '디테일성' 등은 주로 산문영역에 있어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漢詩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茶山의 다른 漢詩 즉 서정적 화자의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적용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田間紀事'를 포함한 서사적 漢詩 특히 詩經體의 漢詩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는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작가 茶山의 탈중세적인 의식이 작품화된 것이며, 산문정신의 특징으로만 보였던 비판성, 합리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시, 소설 등의 형태상 특징보다는 서정, 서사 등의 내용상 특징을 더욱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서구적이며 근대문학을 설명하면서 나타난 것들이라는 점인데 이는 보다 심숙된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성의 문제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 결과가 근자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북한에서의 문학연구업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1. 인물과 환경의 典型性

'田間紀事'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고난을 겪는 농민이 그 전형적 모습을 그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보여 준다.

采蒿采薇	다복속 캐네, 다복속 캐네
匪莠匪莠	다복속 아니라 새밭속이네
群行如羊	양떼처럼 떼를 지어
遵彼山坡	저 산등성이 넘어가네
青裙烏頭	푸른 치마 붉은 머리
紅髮俄兮	하리 굵혀 쑥을 캐네
采蒿何爲	쑥을 캐어 무엇 하리
涕洟如雨	눈물만 쏟아지네
腹無殘粟	살뜯은 쌀 한 톨 없고
野無萌麥	들엔 벼 싹 다 말랐네
唯蒿生之	다복속 캐어다가
爲饑爲科	동글게 굶죽하게
乾之且之	말리고 또 말려서
歎之且之	대치고 소금 절여
我無他食	죽 쑤어 먹을 뉘엔
庶無他兮	달리 또 무엇하리

3장으로 되어있는 '采蒿'의 1장이다. 여기에 흉년을 당해 다복속을 캐어 연명해야 하는 당대 농민의 모습이 나뉘게는 한 여인에 의해 전형화 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詩의 서술자가 작가가 아닌 여인 자신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작가가 숨고 다른 이가 서술자가 됨으로써 표현의 사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사실 '田間紀事' 전체를 통해 작가의 서술이 직접 나타나는 곳은 '有兒'의 마지막 부분 뿐이다. 이처럼 茶山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것 들을 소재로 하여 詩를 쓰되 자신은 문면에 나타내지 않는 방법으로 등장인물들의 전형성을 그렸던 것이다. 이런 점은 다음 '拔苗'의 2~3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有女蓬髮	분무난발 여인 하나
采蒿田中	논밭에 주저 앉아
放聲號咷	푸른 하늘 우러러
呼彼蒼蒼	대성통곡 하는 말이
忍而割蓊	'차마 어찌 정을 끊어
拔此稻苗	이 벼도 뽑을손가
盛夏之月	오뉴월 한여름에
悲風淒淒	슬픈 바람 불어오네
毋-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予-我苗	내 손으로 뽑다니
毋-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予-我苗	내 손으로 뽑다니
毋-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予-我苗	내 손으로 뽑다니
毋-我苗	우거진 나의 모를
予-我苗	내 손으로 뽑다니

이 역시 하늘을 원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당대 농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전형성이란 궁극적으로 작품의 개연성 다른

말로 실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술자=형상화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전형적 인물 이외에 茶山 漢詩에서는 부패한 관리층 이른바 탐관오리의 모습이 농민들의 한탄 가운데 전형화 되기도 한다.

縣官有帖	고을 원님 첩을 내려
藹勿汝憂	'메밀 종자 걱정 말라
我從索司	감사님께 말씀드려
將爲汝求	너희들께 구해 주리
我信其言	우리들 그 말 믿고
既耕既作	논 갈아엎었더니
蕪不我夷	메밀은 주지 않고
而督我尤	우리 허를 타히면서
汝不播藹	'메밀 심지 않으면
我則有罰	너희들께 벌 주리라
白晷未刻	흰 동동이 붉은 곧장
汝庸其罰	너희 싹정 벗겨지리'.

메밀 종자를 착복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괴롭히는 당시 부패한 관리들의 위선과 단행을 실사하였다. 이런 관리들에 대한 분노는 자연적 조건이 어려워 지면 이에 비례하여 더욱 커져갔다. 그러하여 마침내 '豺狼'에 이르면 승냥이와 이리로 비유되기에 이른다.

豺兮虎兮	승냥이여, 호랑이여!
不可以語	말할줄 무엇하리
禽兮獸兮	금수같은 놈들이여
不可以後	나우란들 무엇하리
亦有父母	사또 부모 있디지만
不可以恃	그를 어찌 믿을 건가
〈중략〉	
父母兮	부모여, 사또여!
肥肉是饒	고기 먹고 살밭 먹고
房有妓女	사랑방에 기생 두어
顏如相見	언뜻같이 굶구나

시대가 어려울 때 부패한 관리층은 일반 백성의 일차적 원망 대상이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는데, 茶山의 漢詩에서는 특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관리층을 냉면의 입장에서 전형화 이를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그 폐단의 시정을 국가에 요구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핀 것과 같이 '田間紀事' 6수에 나타나는 전형적 인물은 서술자=전형적 인물로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의 농민과 서술자=전형적 인물인 부패한 관리로 볼 수 있다. 농민과 관리라는 두 유형의 전형적 인물은 서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당시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물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田間紀事'의 경우 그 인물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 인물이 농민과 관리로 형상화 되었으므로 이들에 적합한 전형적 환경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들의 전형적 환경을 규정한 당시의 농촌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전형적 환경에서 이루어 지는 전형적 인물의 행동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東家-	동족 집이 들들들
西家-	서족 집이 들들들
熬寒爲君	보리 볶아 죽 쑤려고
磨之粉-	맷돌소리 요란하네
有거不磨	체질도 하지 않고
有거不磨	밀기울도 불지 않고
粥之爲君	그해로 죽을 쑤어
粥此李陽	주된 장자 채우지만
愛腐膏酸	썩은 트림 신 트림
爲腐爲酸	눈앞이 어질어질
日月無光	해도 달도 빛을 잃고
天地旋轉	하늘 땅이 빙빙 도네

'蕎麥'의 1장이다. 꺼내있기가 힘든 현실 이것이 茶山이 처했던 농촌의 모습이고 우리 나라의 현실이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의 농촌이 당대 우리 농촌의 전형적 모습임을 현재의 독자라도 가슴이 스리는 아픈인 것이다. 이처럼 茶山은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을 전형적 환경으로 하여 그의 시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2. 묘사의 디테일성

묘사의 디테일성이란 세부묘사의 사실적이고 정밀한 성격을 이룬다. 우선 茶山은 그의 漢詩에 있어 소재나 시어를 대폭적으로 넓혀 선택 사용하였다.

采蒿采蒿	다복속 캐네 다복속 캐네
匪莠匪莠	다복속 아니라 제비쑥이네
藜其不羣	명아주 비름마름 다 시들었고
慈姑不羣	소기나름 띄웠은 그대로 말랐네
獨其焦焦	풀, 나무 다 타고
水泉其盡	샘물까지 말랐네
田無田無	논가엔 우렁이 마저 없어지고
海無○○	바다에도 조개, 소라 사라져 버렸네

위에서 보는 것처럼 茶山은 여타의 漢詩作家들과는 구별되게 소재나 시어를 폭넓게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폭넓은 소재로 하여금 장면묘사를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蕎麥'에 부패한 관리의 집을 묘사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

동우隆-	오리우리 큰 집대
園林鬱-	정원 수목 우거져서
有松有竹	소나무 대나무에
有石有池	감나무 돌밭나무
有有綠衣	웃겼어연 명주옷

闌有銅甍	창전엔 놋그릇
牛糞其牢	외양간에 소 누웠고
鶻栖于桀	햇대에 닭 깃들었네

위와 같은 시어의 대폭적인 확장은 서사시의 장르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사실적 특징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묘사의 디테일화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점점 발전하여 장편의 색채적 묘사에까지 이르는데 漢詩라는 근본적 장요소소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稻苗之生	모내에 벼도 자라
嫩綠濃黃	연한 초록 짙은 황색
如錦如錦	비단폭을 깐 것 같이
翠乎其光	푸르딴 은은하네

이러한 漢詩의 함축성을 최대한 이용한 서정적 묘사는 詩經體의 4인시로 훌륭한 서사시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요컨대, 茶山은 소재·시어의 다양화를 통한 묘사의 세밀성으로 하여 인물과 환경의 전형성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田間紀事」의 주제적 고찰

작품의 주제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6편의 '田間紀事'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는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작품 개개인이 나름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田間紀事'의 주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의 인식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의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田間紀事'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의 모습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田間紀事' 작품 전체의 주제를 규정해 본다면 '대립적 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대립이라 함은 물론 전형적 농민과 전형적 관리 사이의 대립을 의미한다. '田間紀事'에서 농민들을 규합하게 되고 있는 것은 자연적 재해와 관리들의 수탈이다. 자연적 재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물론 모든 작품에서 이런 대립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田間紀事' 작품의 총체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작가 茶山이 농민의 입장에 서 있음을 물론이다.

'田間紀事' 전체를 통틀어 직접 작가 자신이 문면에 나서서 그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은 '有兒' 마지막 장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지적한 대립적 구조의 성격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다.

哀此下民	슬프다, 이 백성들
喪其天壽	본성마저 잃었구나
仇厲不愛	부부간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慈母不慈	어머니도 제 자식을 돌볼 수 없네

昔我持耜	갈년에 내가
歲在甲寅	임해에서 되었을 때
王春遺孤	임금님 당부가 고아를 보살피
母必殷嚴	고생없이 하라고 부탁했건만
凡在敎養	배움하는 사람들
母教有違	감히 이말 어질소나

여기에서 보면 茶山은 왕-관리-백성의 세단계의 구분을 통해 왕의 뜻을 따라 관리가 자기 책무를 깨달아 관리와 백성 사이의 대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茶山은 당대 현실의 모순 관계의 해결을 관리들의 자기반성에 달렸고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다. 즉 그는 현실의 모순을 정확히 볼 수는 있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유교적 태두리 내에 구할 수 없어 당대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實學이 性理學의 관점에서 처치하는 위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IV. 結 論

지금까지 茶山 丁若鏞의 '田間紀事'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文學思想과 작품의 寫實性을 고찰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茶山의 文以載道論은 전통성리학자들과는 다른 應事接物하는 사실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그는 詩經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인식 風을 풍자, 풍간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의 이런 새로운 생각은 창작의 기본적 근거를 이루었다.

셋째, '田間紀事'에서 그는 궁핍에 직면한 농민의 모습과 부패의 허위에 찬 관리의 모습을 전형화 하여 나타내고 있다.

넷째, '田間紀事'는 詩經體의 4인 서사시로서 농민과 관리의 대립적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田間紀事'의 주제적 고찰을 통해 당대 현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詩人으로서 實學者로서의 茶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茶山 丁若鏞의 漢詩는 그 종류와 양에 대단히 방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는 그 한 특질의 규명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이상의 논의의 한계일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될 때 아울러 實學派 文學의 위상도 그 본연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창훈
국어교육